문화여성

문화매일

교육도시 오산

제 1057호 2021년 5월 7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8월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한다

국토부, 다음달 지자체 공모 추진…"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 높이는 계기될 것"

오는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는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도시 지표, IBM의 스마트도시 성과지표 등이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시범인증 지자체는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시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6월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칼럼]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조선 시대 태종과 세종의 차이를 통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국가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태종은 왕자의 난과 외척 척결로 잔혹한 정치를 펼쳤고, 종모법(從母法)을 택했다.

반면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조하고, 종부법(從父法)을 펼쳤다. 태종과 세종의 백성 사랑의 결정적 차이는 종부법(從父法)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분이 다를 경우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를 건지가 문제이었다.

태종 이전까지는 종모법(從母法)이었다. 종모법은 양인(良人)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노비가 되는 제도이다. 태종은 신념을 가지고 종부법으로 개정했고, 양인과 노비 사이의 자식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층과 하층민이 있지만, 둘 사이에 두텁고 탄탄한 중산층이 있어야 잘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양인은 중산층이었다. 양인은 세금도 내고, 부역도 하고, 국방의 의무도 졌다. 그만큼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진 것이다.

이 제도가 계속 진행되었으면 법치가 실현되고 불평등이 해소되어 잘 사는 조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 때 다시 종모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사대부들 자신들의 이익에, 세종은 다시 종모법을 실행했다.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이익이 대립할 때 태종은 백성의 편이었지만, 세종은 사대부 편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의 어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탈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던 원전을 포기하고, 조국 딸의 입시부정을 보고, 하루아침에 입시를 바꿔 5지 선단형 찍기로 창의성을 말살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으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이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독서 활동을 없애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인공지능을 앞서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성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와도 상반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수시 종합전형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 학생들과 취약계층들에게는 수시 종합전형은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꿈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취약계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해야 이 나라 경제가 탄탄해지는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국민의 편에 선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불과 10년 안팎으로 5차 산업에 들어가는 싱귤래리티 시대에 학생들은 살고 있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시확대는 역량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대한민국 교육이 위태롭다.

교수/김원호

홍 부총리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의 경우 0~0.2%, 시설 투자는 1%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 공제 범위는 R&D 20~30%, 시설 투자 3%로 정해져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원을 조성, 지원 중이나 올해 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Data·Network·AI)+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은 이달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조달 기업 활동에 불편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약 50억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지원하는 등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을 통해 신속히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AP' 등 협업모델을 신속히 개발하고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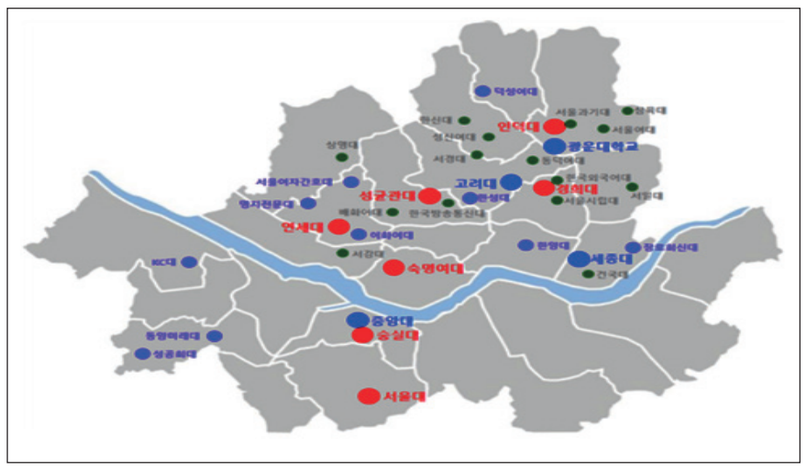
이와 함께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에서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을 추가 선정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은 혁신·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정책금융기관은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기업 선정과 선정기업의 혁신성 정기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서울특별시,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구상 발표…권역별 창업밸리 만든다

서울특별시가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3개 권역(서북·서남·동북)에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창업밸리를 조성하고, 시의 정책자원을 총동원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캠퍼스타운 성과평가를 도입해 확실한 성과를 내는 대학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6일 16시 고려대학교(SK미래관)에서 열리는 「제10회 서울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전을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과 49개 대학교 총장이 처음으로 상견례하는 자리로,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진택 고려대 총장(정책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장단(14명)과 캠퍼스타운 대표 창업기업 ㈜에이올코리아의 백재현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다.

서울캠퍼스타운의 사업성과 공유에 이어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이 '서울캠퍼스타운 2.0.(가칭) 기본방향'을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과 총장이 참여하는 캠퍼스타운 발전방안 토론이 이어진다.

정책협의회는 캠퍼스타운사업의 정책방향을 협의·자문·지원하는 정책거버넌스다. 2016년 11월 출범해 현재, 총 50명(시장, 49명 대학총장)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비전은 서울시가 추진할 '서울캠퍼스타운 2.0(가칭)'의 기본방향에 해당한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과도 맞닿아 있다.

첫째, 3대 권역별 창업밸리를 조성한다. 서북권 '청년창업 메카'(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 ·서남권 'R&D 거점'(서울대-숭실대-중앙대 등) ·동북권 '대학-지역 연계 강화'(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 등)다. 향후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지금까지 개별 대학별로 '점 단위'로 조성했던 캠퍼스타운을 연계해 '선 단위' 클러스터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창업 시너지를 내고 지역균형발전 효과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둘째, 초기 창업 단계를 넘어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다. 미래혁신성장펀드, 대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R&D 지원프로그램 같은 서울시의 정책적 자원을 총동원한다.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업화한다. 실제 수익까지 내는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소셜임팩트와 연계한 투자유치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넷째, 우수한 성과를 낸 캠퍼스타운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도입한다. 창업 분야와 지역상생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사업성과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시한 4가지 기본방향 아래,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학, 자치구, 캠퍼스타운 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서울캠퍼스타운 2.0(가칭) 계획」을 수립한다.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캠퍼스타운은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시-대학-지역이 협력해 청년창업과 침체된 대학가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관련 논의를 시작, 현재 서울시내 34곳에서 조성·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지난 4년 간 646개 창업팀이 배출됐고, 무려 9,0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보이며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 첫 해(2017년) 87개였던 창업팀은 646개(640%↑)로, 창업지원시설도 24개소→72개소(200%↑)로 각각 증가했다. 매출액은 3억8천만 원→347억 원(9,031%↑), 투자유치액도 44억원→252억원(472%↑)으로 각각 크게 상승했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캠퍼스타운의 노력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역상인들과 용문전통시장 축제를 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2020년 9월)됐다. 중앙대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으로 택배 포장재를 제작, 환경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청년·지역주민 간 협력을 통해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 상권살리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등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진택 정책협의회장(고려대 총장)은 "청년창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대학 간 협력을 위해서 서울시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재임 시절부터 구상했던 캠퍼스타운 사업 아이디어의 씨앗이 실제로 구현된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상반기 중 마련할 서울캠퍼스타운 2.0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 유니콘을 품은 캠퍼스타운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대학·지역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유용 위원장, 권수정·이성배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5월 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을 위원장으로,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 이성배(국민의힘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동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에 대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서대문4, 보건복지)과 김정태 운영위원장(영등포2, 행정자치),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 환경수자원)을 비롯한 11개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체육 분야뿐 아니라 교통, 의료, 안전, 보건복지, 예산 등 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다각도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2 올림픽특위 유용 위원장은 "서울시가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범정부와 공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호주 브리즈번의 우선협상도시 선정이 올림픽 유치 도시 최종 선정은 아니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권수정 부위원장는 "10년 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유치지원 단계부터 선배, 동료 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성배 부위원장은 "2032 올림픽에서 선수로 활동할 학생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체육시설도 틈틈이 방문하고 있다. 넓게는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고, 좁게는 미래 꿈나무인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를 비롯한 관계부서로부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장기 비전에 입각한 분야별 준비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유용 위원장과 권수정, 이성배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권영희(비례,기획경제) ▲ 김경우(동작2, 보건복지) ▲김정태(영등포2, 행정자치) ▲김평남(강남2, 도시안전) ▲송재혁(노원6, 환경수자원) ▲이준형(강동1, 기획경제) ▲이호대(구로2, 교육) ▲임종국(종로2, 교육) ▲장상기(강서, 도시계획) ▲전병주(광진1, 교육) ▲정진철(송파6, 교통) ▲ 조상호(서대문4, 보건복지)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경상남도, 2020년 8월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댐하류 수해피해 간담회 개최

지난해 홍수피해 도내 4개시군 주민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예정

경상남도는 6일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댐하류 수해피해 간담회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남도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담당하는 도 환경정책과,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담당과장과 주민대표, 손해사정사 및 환경분쟁조정 전문가(변호사,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부에서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수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도내 4개 시군으로 진주, 사천, 하동, 합천이 해당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고, 5월말 중간 결과 도출,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조사가 빨리 이루어진 조사 사례를 공유하여, 피해조사 예정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군에서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보다 내실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조정신청서 제출 시 구비하여야 할 증빙자료와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조사자료에 대하여 피해산출 방법,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하였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군에서는 본 간담회 내용을 활용하여, 더욱 내실있게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우수기 전에 신속히 분쟁조정이 처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라고 밝히고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도내 4개 시군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서울시의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위원장 송명화)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석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는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과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이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22년까지 500MW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러면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시 2050년까지는 태양광 5GW를 보급하여 2050년 넷제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기준 총 305MW를 보급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2022년까지 500MW 수정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5년의 목표가 0.5GW면 5GW를 보급하려면 50년이 걸리게 된다.

기존의 공공부지, 주택·건물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 수용성 개선, 태양광 설치 유인을 위한 제도마련,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BIPV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운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심미성, 발전효율 및 경제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초기 공공 주도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서울시 태양광 정책이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한 제도마련, 산업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 되었다고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고견들이 향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 박차!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를 왜곡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친일잔재 조사·연구·청산작업이 광주에서 본격화된다.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조례안」이 6일 열린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친일잔재를 발굴·보존·관리하는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했고,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 5개 자치구,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행·재정적으로 친일 잔재를 조사·연구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산에 이르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원회의 역할과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 마련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 될 예정인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조례안」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등 끊임없는 논란을 부추기는 일본에 대한 규탄결의"와 같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열린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조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어 교육현장에서의 친일잔재 청산 근거도 마련했다.

김덕윤/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서울시 최초! 중구 돌봄SOS센터 도시락 용기 재사용 추진

중구 돌봄SOS센터, 일회용품 쓰레기 없는 도시락 배달 시작

중구가 서울시 돌봄SOS센터 중 최초로 재사용 용기를 이용한 식사지원 서비스를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돌봄SOS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이상 중장년·어르신, 장애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탈(脫) 플라스틱'을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과 음식 배달 등으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실질적 대책은 더 강조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구는 돌봄SOS센터 도시락 배달 업체인 ㈜바른참과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 업체인 트래쉬버스터즈와의 3자 협약을 통해 서울시 최초로 도시락 용기 재사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배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식사지원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 일회용품 대체서비스 업체가 수거 후 3단계의 세척 및 건조, 열풍소독, UV 살균소독의 과정을 통해 위생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용기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도시락 배달시 사용하던 포장제도 친환경 100% 생분해성 비닐봉투 3만장을 자체 제작하여 식사지원 업체에 지원했다. 옥수수 전분 등을 가공한 생분해성 비닐은 100년이 지나도 썩지않는 기존의 합성수지 비닐과 달리 매립시 90일 만에 자연분해 되어 친환경적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교체함으로써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일회용품 분리배출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을 위한 중구의 새로운 시도가 공공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중구 돌봄SOS센터는 지난해 관내 일상생활이 불편한 구민 364명에게 식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그 대상이 더 확대돼 434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재사용 용기의 수거 및 세척과정을 거치는 수고스러움과 비용 발생은 있겠지만 1회용품 쓰레기로 인해 지구가 짊어질 미래 부담과 비교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일 것"이라며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품 사용보다는 재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인천 서구문화도시추진단, 생태탐구 프로그램 '시민 LAB' 참여 활동가 모집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연계한 시민 활동가 발굴 및 양성

인천 서구 문화도시추진단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함께 서구의 생태환경을 탐구하고 서구만의 생태탐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민 LAB'참여 활동가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태탐구 프로그램 '시민 LAB'은 참여 활동가가 지역의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생태탐구 프로그램을 실행해 서구만의 생태환경 의제를 도출하는 사업이다.

참여 활동가는 경인아라뱃길, 수도권매립지, 청라호수공원, 생태하천 등 서구의 생태적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태환경을 조사·연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또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 탐방, 생태탐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의제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 등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생태환경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기회와 프로젝트 연구비, 개별 멘토링,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활동비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서구를 기반으로 마을활동, 예술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이며, 참여 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다. 생태적삶시민조사단참여활동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남/기자

노원구, 일상 속 행복이 되는 문화예술 '경춘선숲길 갤러리' 개관

서울 노원구가 공릉동 화랑대 철도공원 내 '경춘선숲길 갤러리'를 오는 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즐기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명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춘선숲길 갤러리는 공릉동 29-4 화랑대 철도공원 내 전시된 미카 증기기관차와 목예원 사이에 위치한다. 자재 창고로 활용하던 컨테이너 4량을 개조해 소규모 갤러리로 재단장했다. 연면적 144㎡ 규모로 전시실, 체험공간, 야외 휴게마당, 수장고 등을 갖췄다.

갤러리에서는 상설과 기획전시는 물론 일반 대관을 통해 민간 예술인에게도 전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대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선보여 화랑대 철도공원을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개관을 알리는 기념전도 열린다.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개최되는 기념전은 노원미술협회 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회화 뿐 아니라 도예, 조각 등 시각예술작품 20~30여점이 전시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경춘선숲길 갤러리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관람료는 무료다.

대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춘선숲길 갤러리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갤러리가 위치한 화랑대 철도공원은 서울 동북권의 힐링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고즈넉한 풍경과 오래된 철길의 독특한 정취, 그리고 밤이 되면 아름답게 빛을 내는

경관 조명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경춘선숲길 내 불빛정원은 시설물과 컨텐츠에 꾸준한 변화를 주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아바타 트리'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아바타 트리는 높이 7미터, 너비 10미터의 대형 꽃나무 조형물이다. 걸이화분 1,500개를 설치하고 조형물 아래에는 25㎡의 꽃화단을 조성했다. 40개의 조명장치도 설치해 밤이면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철도공원 내 기차카페 개관을 시작으로 시간박물관과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화랑대역사와 경춘선숲길은 추억과 낭만이 담겨있는 역사문화공간"이라며 "경춘선숲길 갤러리 개관으로 문화예술의 색을 입혀 더욱 새로워지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동대문구 세계문화축제 온라인으로 만나요

동대문구가 제13회 동대문구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축제를 5월 22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대문구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이주민 한국어말하기대회 , 다문화 체험(요리&공예), 결혼이주여성합창단 '행복메아리' 공연,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아버지-자녀 가족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연이어 진행된다.

특히 다문화체험(요리&공예) 프로그램에서는 유튜브 시청자와 중국요리(동파육), 캄보디아 가랜드, 베트남요리(분짜), 한국 스칸디아모스 한반도 등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구민은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전신청(선착순 500가구) 하면 재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당일 유튜브를 보며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체험신청은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유튜브 '방구석 세계문화축제'를 통해 영상으로 송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번 행사가 5월 20일 '세계인의 날'과 5월 가정의 달에 맞추어 진행되는 만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강동빗살머니 50억 원 추가발행!

5월 3일 강동빗살머니 50억 원 추가발행, 할인율 7%로 1인당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강동구가 5월 3일 관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강동빗살머니 5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

강동빗살머니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발행한 카드형 지역화폐이다.

구는 올해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는 강동빗살머니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재 3월 30억 원, 4월 50억 원과 5월 추가로 발행한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0억 원을 발행했다.

특히, 지난달 12일 추가 발행한 50억 원은 특별할인 10%와 함께 할인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강동빗살머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5월 3일에 발행한 50억 원은 특별할인기간이 종료되었지만 7% 상시할인율과 1인당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빗살머니가 발행할 때마다 조기 소진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도 살리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강동빗살머니를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빗살머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래서울 콜센터 또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석/기자

광진구, 서울시 최초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시행

교통 사각지대 마을버스 이용객 지원하여 구민 부담 완화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만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한다.

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버스 이용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구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구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린이·청소년 선불 티머니 카드 또는 5월 중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인 무상교통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카드등록을 해야 한다.

금액은 어린이의 경우, 연간 8만 원, 청소년은 연간 16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카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9월에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 해당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티머니 T마일리지로 사후 지급된다.

특히, 이번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은 단일 통행뿐만 아니라 타 시내버스나 지하철 환승 후 발생하는 마을버스 이용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버스 이용 구민들에게 교통비 하나라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이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도봉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이행 배지 획득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분야에서 총 3개 항목의 GCoM 이행 배지 획득

도봉구가 지난 4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첫 평가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GCoM은 2017년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유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로, 전 세계 6개 대륙, 130여 개 국가의 10,600여 개 도시가 동참하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가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1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 가입도시는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작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 ▲기후 위험요소 및 취약성 분석·평가 ▲기후·에너지 행동계획 이행 등 단계별 서약내용 이행사항을 "CDP-ICLEI 통합보고시스템(Unified Reporting System)"을 통해 매년 보고하고 평가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감축분야 3개 항목(온실가스 인벤토리, 목표, 계획) △적응분야 3개 항목(평가, 목표, 계획) △에너지분야 3개 항목(평가, 목표, 계획)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에 일정 수준 이상 응답을 하면 GCoM 배지를 획득한다.

2020년 평가는 에너지 분야가 제외된 2개 분야, 6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실시됐으며, 평가결과는 지난 4월 21일 GCoM 한국사무소를 통해 공표되었다.

도봉구는 감축분야에서 '목표'항목, 적응분야에서 '평가'와 '목표'항목 등 총 3개 항목에 대해 이행실적을 인정받아 GCoM 배지를 획득했다. 2020년 첫 평가를 맞이한 새내기 도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도봉구의 3개 항목의 배지 획득은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발표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한 도봉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한 이행과제 실행으로 조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거행된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대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GCoM 협약 당사자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봉구 전 주민과 함께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GCoM 배지 수여 결과는 GCoM 홈페이지 내 개별 도시 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최광수/기자

관악구-블랙야크, 투명페트병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체결

관악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조기정착으로 친환경 의류·물품 재생산 기대

관악구가 지난 3일,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서울 서초구 양재사옥에서 '투명페트병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의 조기 정착과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 체계 구축 추진 ▲ 수거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업체 연계 ▲ 친환경 의류·물품 생산 등을 담았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7월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 및 별도수거를 위해 상반기 중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을 동주민센터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스마트 수거함은 투명페트병 바코드를 인식 후 수거함에 넣으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에 따라 음료, 피자 등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추진(2021. 12. 25. 예정)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도 블랙야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 자원순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악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조기 정착으로 친환경 의류·물품이 재생산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환경문제는 모두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청정관악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도 일상 속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주거고민? 금천청년 주거상담으로 해결!

금천구, 청년들의 주거고민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금천구가 지역 내 증가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5월부터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부동산 계약 등에 미숙한 사회초년기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은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담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되며, 온라인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금천청년주거상담'을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시 상담이 가능하다. 1:1 오프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사전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청춘뻘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금천구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물론, 주거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에 관한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주거마련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 현장방문 동행서비스를 제공해 계약 전 확인 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며, 청년들이 각자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춘뻘딩에서는 300건 이상의 온·오프라인 주거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에 참여한 한 청년은 "부동산에 방문하는 것이 부담되어 늘 고민이었는데 카카오톡을 통해 편안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 좋았다"며 참여후기를 남겼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도 1인 가구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청춘뻘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성/기자

은평구,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시행

은평구는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공정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방쪼개기, 발코니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신고건축물,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요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조사·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용산구,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조손가구, 노령부부 대상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어르신 200명에게 반려식물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께 원예치료 서비스를 제공, 우울증 예방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다.

보급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다.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반려식물에 관심이 있는 독거어르신, 조손가구, 노령부부 등 200 가구를 선발했다.

보급 식물은 고무나무, 카랑코에(관목식물) 2종이다. 이들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식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이와 함께 우울증, 고독사 예방을 위해 원예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려식물 제공 시 원예치료사가 해당 가구를 방문, ▲반려식물과 대화하기 ▲애칭 부르기 ▲사진 찍기 등 원예심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분기별로 반려식물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 안부를 묻는 유선 원예치료 서비스를 이어간다. 특히 원예치료 상담 보조 인력을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생을 채용,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올해 도시농업 공간 조성·관리, 생태계 회복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이외에도 옥상 텃밭(다중이용시설), 학교 텃밭(학교 내 생태교육장), 치유 텃밭(사회복지시설), 친환경 상자텃밭(지역 거주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은 가정의 달에 더욱 외로움이 크다"며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인천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 활성화 추진

인천광역시는 장기 기증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확산을 위해 올해 장기 기증 장려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이란 이식을 필요로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 장기를 제공해 생명을 살리는 행위로 장기뿐 아니라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0년 현재 전국의 장기 등 기증 희망자수는 1,566,630명(인구의 3.0%)이며, 이중 인천의 경우 인천 인구의 2.7%인 77,444명이 기능 희망등록을 했다. 매해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61% 영국 38% 등 기증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비대면이 일상화 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생명 나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호응을 끌어 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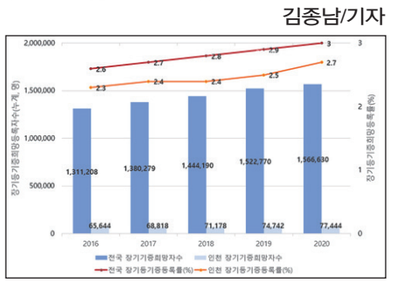
우선 시는 인천의료원의 협조를 통해 관내 장기기증 관련 단체에 등록된 장기기증 유가족 또는 장기기증희망 시민에 대해 ▲종합검진비 할인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감면 ▲예방접종비용 할인 등의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더불어 기존 지원책인 ▲인천시설관리공단 운영 화장시설의 사용료 전액 감면과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사)새생명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있으며 시와 상호 협조를 통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전광판 등에 장기 기증 장려를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민간단체 주도로 생명 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Bridge for Life)으로 인천대교 초록색 점등행사를 할 예정이다.

안광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생명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값진 행동"이라며"적극적인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장려 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증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영등포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방역물품 지원

주민 거주지 대상 방역대책 지속하며 코로나19 확산세 적극 대처

영등포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등포 전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지난 3일부터 방역물품 지원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구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책을 지속 실시해왔다.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지역 공동주택 전체에 손소독제 2300개와 항균필름을 배부한 바 있다.

올해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 구는 지난 3일부터 공동주택에 KF94 마스크, 손소독제, 항균필름 등을 배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에는 입주민들과 수시로 대면하는 공동주택 근로자들인 경비원, 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대량 지원하게 됐다.

총 10만5000개의 마스크가 지역 전체 공동주택 187개 단지 근로자 2100여 명에게 3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모두 배부됐다. 이로써 경비원 및 미화원 1인당 50매씩의 마스크를 지원받게 됐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승강기 1대당 5개씩 할당된 손소독제 8800개와 함께 승강기 버튼 등에 부착할 항균필름 250롤을 마스크와 함께 배부했다.

방역물품을 전달받은 미화원 이○○씨는 "힘든 시국에 구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배부해서 힘이 나고,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부터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사회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지에 대한 집중 방역대책 마련에 힘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한 대형음식점 무더기 적발

4월7일~16일 외식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지역 유명 음식점 360곳 대상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ㄷ'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이천시 소재의 'ㄹ' 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소재 'ㅁ'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소재 'ㅂ' 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라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하여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고, 파주시 소재 'ㅅ' 음식점은 차돌짬뽕으로 메뉴판 등에 표시했으나, 차돌박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우삼겹을 사용하는 등 표시된 것과 다른 주재료를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창원시, 농업분야 선제적 대응 특별점검 결과 발표

농지이용실태·농업보조금 사후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등 3개 분야 2669건 점검해 548건 적발

창원시는 6일 4월 한 달간 농지이용실태, 농업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2669건에 대해 특별점검 결과를 밝혔다.

이는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LH 사태와 일반인부터 정부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농지투기 또는 특혜 의혹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하락한 대시민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해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됐다.

첫째, 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관외 소유자 농지 등 투기 및 방치가 우려되는 농지를 중점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총 430건의 조치대상 농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불법형질변경 8건, 휴경 112건, 공부자료 미일치 310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불법형질변경 농지는 원상복구명령, 미 이행시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공부자료 미일치 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자료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둘째, 시는 최근 5년간 지원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973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시설 고장 및 파손 등의 관리실태 부실(34개소) △작물 생육불량(12개소)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실적 미비(7개소) △시설 미운영(2개소) △보조사업 사후관리 스티커 훼손 및 미부착(61개소) 등의 116건의 경미한 위반과 △당초 목적외 사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2건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됐다. 시는 즉시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셋째, 현재 승인 및 개발 진행 중인 마산합포구 구산면 중심으로 현재 개발 중인 관광농원까지 총 4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사업진행상황, 사업계획대로 추진 여부 등을 종합 점검했다. 추진율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 공정표,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 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변경 승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농업보조금 및 농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민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분야 대대적인 특별 점검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에게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농지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는 투기, 소유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업계, 외지인들까지 인지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대전 동구,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특별점검 나서

오는 7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등 위법헹위 점검

대전 동구는 오는 7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일본산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 및 조리하는 관내 수산물판매업소 및 음식점 17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등이며 구는 유통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행복 건강도시 동구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정화/기자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녹양종합사회복지관 현장점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5월 4일 올해 새롭게 개관·운영 중인 녹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완식)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및 그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체육로 254)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19년 7월 착공, 1년 3개월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30일 완공됐다.

연면적 약 3천7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 주차장, 지상 1층 소강당 및 카페, 2층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및 다목적 체육실, 3층에는 프로그램실, 식당 및 대강당이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의 편의를 배려해서 설계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1월 4일(월) 운영개시 후,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사전 확인차 진행했으며, 황범순 부시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흥선권역 주민들은 물론 의정부시민 모두에게'종합복지공간'운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남원시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편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확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박승원 광명시장, 주민 불편 개선'빗 속 현장행보'

박승원 광명시장은 5월 4일 오후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안1동, 하안2동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 오후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안1동, 하안2동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달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각종 생활 불편사항을 듣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행사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시민과의 만남을 잠깐 뒤로 하고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 불편 사항 개선에 나섰다.

이날 박 시장은 먼저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앞을 방문해 행정복지센터 및 하안5단지 아파트 진입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신호 및 횡단로 설치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하안동 단독필지를 방문해 보도블럭 상태를 살펴보고 밤일음식문화거리 주차장 부족 민원에 따른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만나 철망산 운동기구 도색, 보안등 설치, 계단 보수 등 불편사항을 수렴했다. 박 시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한 주민은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현장을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내가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며 "시민과의 소통, 공감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하안1동과 하안2동을 시작으로 이 달 중으로 모든 동 현장을 둘러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전기차충전소 정보파악 쉬워지는 '스마트도시 수원'

행안부 공모 추가 선정…충전소 위치 및 타입 등 시설정보 민간 개방 예정

수원시가 곳곳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위치나 기종, 품질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민간 부문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품질점검 및 신규데이터 구축' 사업이 추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open API 구축' 사업에 이어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수원시는 스마트도시로 안내하는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품질점검 및 신규데이터 구축'은 수원시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와 한국전력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제공되지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소 등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원시는 지역 내 통합 데이터 구축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로 변환돼 시민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수원시 빅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전자지도 서비스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청년인턴십 사업과 연계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과 데이터를 일치시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등록 대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공데이터와 생활이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를 융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파악하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이를 활용한 민간부문의 수익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제16회 오산시 어린이날 기념식 랜선 개최 "안전하고 신나게"

오산시는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없이 존중받으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99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5일 「제16회 오산시 어린이날 기념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했으며, △모범어린이에 대한 표창 △희망을 담은 까산이·까오 티셔츠 만들기 △레크리에션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날은 어린이의회의 제안으로 취약계층 아동 700여명에게 행복한 어린이날을 함께 보내자는 의미를 담아 "오월의 산타"선물꾸러미를 전달함으로써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가 되었다.

기념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답답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잠시나마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며 "얼른 코로나를 이겨내서 오산의 어린이가 행복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어린이날 기념식은 매년 오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오산시의 대표적인 아동참여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남주/기자

고양시,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청신호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공개...시민 의견 수렴해 설계 반영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Mock-Up) 전시회'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고양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초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서 운행되는 GTX-A 차량의 본격 제작에 앞서 내·외관 디자인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되는 차량은 지난해 8~9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제작된 실물 크기의 GTX-A 차량 모형이다.

차량 외관은 대심도에서 최대 180km/h의 고속으로 운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원한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곡선을 살린 디자인이 채택됐다. 또 단문형 출입문을 한 량에 6개씩(한쪽에 3개씩) 도입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GTX-A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통 시 경기서북부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선 구간 공사도 중요하지만 108만 고양시민의 발이 돼 줄 열차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차량이 납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들은 고양관광정보센터로 이동해 현대로템(주) 관계자에게 신교통수단(수소 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이날 이들은 교통 현안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포함 노선 추진방안, 신교통수단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22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시가 건의한 총 7개 노선이 모두 반영됐다. (고양 은평선, 인천2호선 일산서구 연장, 일산선 금릉연장, 신분당선 서북부 삼송 연장, 통일로선, 교외선, 부천대장지구~서울 홍대선)

이에 시는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선기능을 갖춘 신교통수단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안양·의왕에도 이동노동자쉼터 문 연다‥ 쉼터 유형 다양화도 추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가 안양, 의왕에도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의 새로운 사업지로 안양과 의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광주를 시작으로 그간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총 6개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으며, 오는 하반기인 7월과 9월에 각각 부천과 포천에 개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안양과 의왕은 각각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 쉼터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안양 쉼터는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만들어질 예정으로, 평촌역 500m이내에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 대리운전 수요가 가장 많은 중심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주 이용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 쉼터는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의 1·2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근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어 택배, 배달,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 수요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휴게실, 상담실, 다목적실 등 각종 시설들을 갖출 예정으로, 이밖에도 법률·노무 상담, 일자리 상담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거점쉼터 외에도 필수노동자인 택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접근 용이하고 짧게 휴식할 수 있는 '간이쉼터'를 설치하는 등 이동노동자쉼터 유형 다양화를 추진한다.

간이쉼터는 택배, 대리기사의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 부스형과 캐노피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거점쉼터는 야간시간 휴게 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 노동복지, 일자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쉼터가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최종환 파주시장, 어린이날 기념 아동복지시설 방문

최종환 파주시장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평화원과 파주보육원을 방문했다. 시설 방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환 시장은 이날 시설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상품권과 과일을 전달했다.

위 시설들은 1950년대에 설립돼 전쟁고아부터 다양한 사연으로 가정이 해체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까지, '가정'으로서 보살핌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평화원에는 종사자 16명과 아동 31명, 파주보육원에는 종사자 29명과 아동 52명이 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아동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집단간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시설 종사자 덕분"이라며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수칙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기를 바란다. 보호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귀농귀촌이 어려우신가요? 행복멘토가 해결해드립니다"

초보 농업인을 위해 최대 5회까지 무료로 멘토링, 전문 상품 개발·경영기법 등 전수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올해 11월까지 지역민-초보귀농인 간 소통과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귀촌 인구 1위(12만3,461명) 지역이다. 서울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대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멘티 신청 자격은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희망자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단계인 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거주 5년 이내(전입일 기준) 귀농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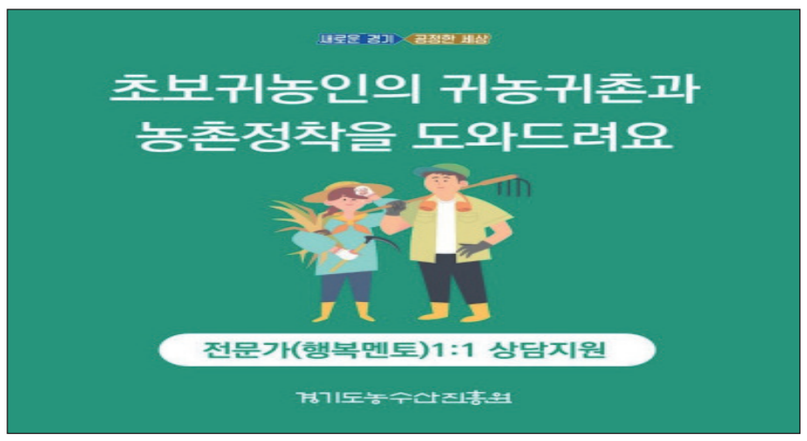
신청자는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맞춤형 멘토를 통해 현장 방문 멘토링, 상품·제품 개발 재능 멘토링 등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이윤경 평택 다믈농장 대표는 "책으로만 보는 현장 경험과 달리 전문가의 이야기와 경험을 배워서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며 "올해도 많은 귀농귀촌 희망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 구상단계에서 안정적 정착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성공적 귀농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수/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사례 현장 점검

하남시, 4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김상호 시장 등 어린이보호구역 우수사례 현장 점검 진행

하남시는 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장동 하남유치원 일원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민식이법 시행 1년·가정의 달과 연계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행안부 주요정책 이행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교사·학부모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점검 및 간담회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대형 하남경찰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 등이 함께 했다.

해당 사업 현장은 인근에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3개소가 밀집해 있으나, 불법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통학로가 없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에 시는 작년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일환 으로, 국비 포함 총 6억5000만원을 투입, 인근 일대 통학로 확보 및 차량 속도 하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 ▲불법 노상주차장 폐쇄 ▲소형 회전교차로 및 일반통행 도입 ▲보도 신설 및 안전시설 설치 ▲과속·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보행자안전솔루션 등을 설치했다.

다만 시에 따르며, 사업추진 당시에는 공사로 인한 불편과 일반통행·회전교차로 등 교통체계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관계자 및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해, 결국 어린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사업을 완료한 결과, 사업 이전 적지 않게 발생했던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현장점검이 끝난 후 인근 스타필드 어린이집 4층 회의실로 이동해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하남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하남시 학부모 연합회장·경기 유치원연합회 회장·하남유치원 원장·스타필드 어린이집 대표 및 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전 장관과 김 시장 등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등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대안 ▲어린이집 코로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전 장관은 "교통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자동차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라며, "둘째는 시,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시민 등 민관이 협력해 만든 모범적 혁신사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모범적 사례로 남아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전파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최만식/기자

시흥시, '2021 영유아를 위한 공연 창작개발 심화과정' 추진

시흥시가 생태문화도시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21 영유아를 위한 공연 창작개발 심화과정'을 추진한다.

'영유아를 위한 공연 창작개발 과정'은 시흥시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관내 영유아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해 첫 도입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직접 창작의 주체가 돼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극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2019년에는 공동창작 작품 3편을 제작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워크숍으로 전환해 영유아를 위한 1인극 14편을 개발해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본 과정을 수료한 시민 창작자들은 별도의 영유아 극 전문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앞두고 있기도 한다. '영유아를 위한 공연 창작개발 과정'이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심화과정은 지난해 만든 14편의 영유아를 위한 1인극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본 수정부터 시작해 동선, 움직임, 연기 등을 보완하고, 각 작품에 맞는 간단한 무대, 대소도구, 의상, 음악 등도 제작·적용해 본격적으로 관객을 만날 준비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이번 과정은 국내·외에서 영유아 공연 전문가로 통하는 극단 마실의 손혜정 연출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다.

시 관계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 문화예술계는 영유아 공연예술에 주목하여 영유아를 위한 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발맞춰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영유아에게 주목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 장르를 개발하며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완성된 작품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관내 관련기관, 유아교육기관 등에 배급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올 하반기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다목적 홀 등 영유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최정부/기자

대구시, '여행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야!'

티셔츠 만들기, 민화 그리기 외 역사, 문화, 음식, 레저분야 등 21개 체험상품 운영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해 올해 2월 최종 선정된 대구 웰니스 체험관광 상품을 5월부터 온라인 기반 여행사(OTA)에서 할인 및 각종 이벤트와 함께 판매를 진행한다.

대구의 웰니스 체험관광상품 '나만의 체험 여행! 대구로'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됐으며 5차례의 역량강화 교육과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홍보동영상 제작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최근의 개별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건강한 삶을 위한 웰니스에 초점을 두고 역사, 문화, 음식, 레저 및 이색체험이 결합돼 대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체험관광 상품을 발굴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실크스크린 인쇄로 티셔츠 만들기', '전기자전거로 즐기는 대구 관광', '소망을 담은 민화 그리기', '대구를 담은 나만의 오르골 만들기'등 21가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체험이 가능하다.

상품은 현재 OTA(온라인 기반 여행사)인 프립, 클룩, 트레이지, 트레볼루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상세 상품 내용은 체험!대구로 SNS채널과 대구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진행하는 프로모션 기간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만의 체험 여행! 대구로~의 다양한 상품을 통해 대구의 숨겨져 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경북도,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비대면 축하의 자리 마련

모범어린이 표창 수여 28명, 어린이 댄스팀 축하공연 등 TV 방영

경상북도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어 지내는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비대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각종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어린이들을 위해 도 차원에서 TV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모범어린이 표창수상자 등 30여명만 참여하여 기념식을 가졌으며, 도내 어린이들은 TV 시청을 통해 축하공연 등에 함께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생활 태도를 지니고 밝고 올바른 품성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한 도내 모범어린이 28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동요메들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에서 대상을 수상한 어린이 댄스팀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의 탈춤을 접목한 탈바꾸기 연극 말뚝이 변검과 독도사랑 스포츠 공연단의 코로나19, 학교폭력, 아동학대를 태권도를 통해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함께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마음껏 뛰어 노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세상의 주인이다, 아이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약속하며 어린이들에게 축하를 인사를 전했다.

김세기/기자

삼국통일 대업 이룬 신라 30대 문무대왕 시호 딴 문무대왕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기념

"이제부턴 문무대왕면으로 불러주세요!" 경주시는 4일 오후 문무대왕면 봉길리 해변에서 문무대왕면 선포식을 열었다.

지난달 1일 양북면 명칭을 문무대왕면으로 바꾼 경주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대신해 김호진 부시장이 참석했고, 서호대 시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 시·도의원, 문무대왕면 명칭변경추진위 이판보 위원장, 언론사 대표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이날 행사를 지원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원흥대 본부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상복 중저준위운영본부장도 참석해 문무대왕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지난해 10월 경주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1288세대 중 1137세대(8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붙여진 의미 없던 지명에서 문무대왕면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고유성과 역사성을 띈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이날 선포식에 앞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예정지인 옛 대본초등학교에서 '문무대왕 유조비' 제막식도 함께 거행되면서 선포식의 의미를 더했다.

문무대왕 유조비는 삼국통일의 대업과 애민정신의 큰 뜻을 받들고 계승하기 위해 삼국통일을 이룬 해인 676년을 상징하는 6.76m 높이의 문무대왕의 유언이 새겨진 비석이다.

김호진 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이라는 새 명칭과 함께 환동해권역의 '해양역사 테마관광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위 표시에 따른 명칭에 불과했던 양북면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담은 문무대왕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호대 의장은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문무대왕해양역사관이 개관하고, 동해바다 문무대왕릉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되면 문무대왕면이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석기 의원은 "문무대왕릉이 있는 양북면의 명칭이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문무대왕면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며 "이번 명칭 변경으로 문무대왕면이 경북의 해양관광벨트를 견인하는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 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 문무대왕면 뿐만 아니라 평창군 도암면은 '대관령면'으로, 영월군 서면은 '한반도면', 하동면은 '김삿갓면', 수주면은 '무릉도원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경북 고령군 고령읍은 '대가야읍'으로, 울진군 서면은 '금강송면', 원남면은 '매화면', 강원도 남면은 '국토정중앙면'으로 바뀌는 등 전국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지명이 속속 생기고 있다.

한반식/기자

청송군, 온라인으로 만나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송군이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소통을 통해 '산소카페 청송군'과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청송얼음골에서 즐기는 캠핑, 주산지의 사계절, 화산이 만든 주왕산의 단풍 등 청송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질학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모바일에 친숙한 MZ 세대를 대상으로 연중 지질공원을 홍보하여 잠재적 관광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식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는 청송 지질공원, 온택트 지질교육, 탐방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청송 지질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를 확보할 전략이다.

특히 청송군은 온택트 지질교육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청송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강의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며, 강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건강, 힐링, 교육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트렌드에 대응하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청송의 청정 자연과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구미시 어린이날 맞이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실시

시민들의 관심 고취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노력

구미시는 5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낙동강체육공원 및 구미역 일대에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덕진)과 합동으로 어린이날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은 위기아동에 대한 관심 촉구와 적극적인 신고문화 조성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동학대안내 리플릿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와 구미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안내, 아동학대예방 가두 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박영희 아동보육과장은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또한"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당부했다.

구미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더불어 우리동네 아동지킴이 운영 등으로 학대위험아동 조기 발굴 및 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민과 공공부문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아동학대예방 명사초청 특강 등을 통해 아동권익증진과 아동학대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코로나19 퇴치! 어게인 안심 경북! 울진군 출정식

울진군과 울진군 새마을회(회장 신용철)는 지난 4월 30일 울진군청 옆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새마을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퇴치! 어게인(Again) 안심 경북!' 울진군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0여 명의 새마을 회원들은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진군청까지 가두 행진을 하며, 시가지 상가 및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씻기, 아프면 선별 진료소 방문하기 등을 홍보하고 마스크 5,000장, 손소독제 70개 등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

이번 행사는 울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시행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방역점검 활동을 전개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함께 힘내자'는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신용철 울진군 새마을회장은 "코로나 19 퇴치를 위해 솔선수범해주시는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데 코로나19 퇴치 운동에 앞장서 주신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영덕군, 저소득가구에 한시생계지원 사업 추진

영덕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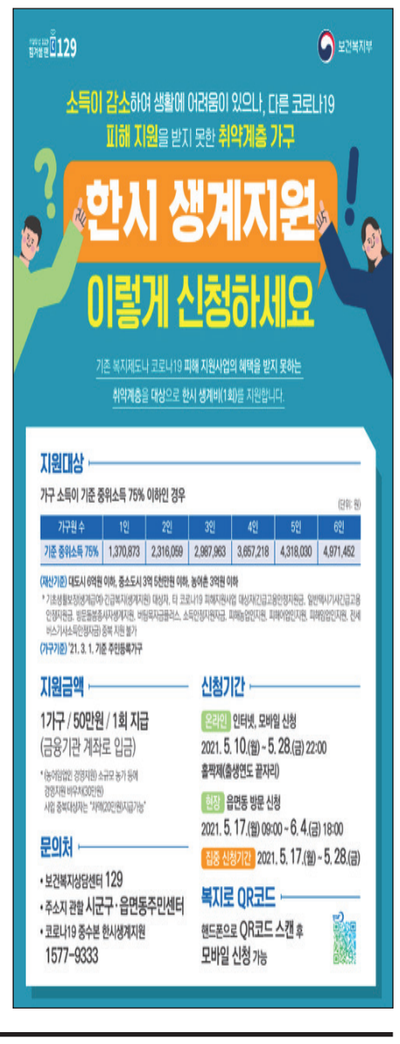
지급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2020년 대비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요건충족 시 차액인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나,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10일부터 28일까지 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가구원을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17일부터 6월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이 6월말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부산시 2025년까지 서부산권 부품산업에 407억원 투입, 일자리 6천개 창출!

협약식에 앞서, 11시에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 개소식도 가져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공모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월 7일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5월 7일 13:10에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대근 사상구청장 및 산학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자체 컨소시엄(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이 주도적으로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하여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와 컨소시엄(이하 '부산광역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사업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약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3~4월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서부산권 3개 자치구(사하·강서·사하구)는 부산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의 69%, 산업단지의 79%가 집중된 지역으로 조선·자동차 산업의 장기 침체로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부산시 컨소시엄은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407억 원을 투입, 6,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첫해인 2021년에는 81.3억(국비 65억, 시비 14.6억, 사하구 0.5억, 사상구 0.5억, 강서구 0.7억)을 투입해 3개 프로젝트,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1,11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이다.

첫 해인 2021년도의 사업내용은, ❶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하철1호선 하단역 인근에 100평 규모의 '서부산권 고용안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직업상담사 12명이 취업 매칭에서 컨설팅까지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산업의 퇴직(예정)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직업탐색 프로그램에서부터 맞춤형 전문기술훈련(10개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부품산업 기업으로 취업한 신규 취업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장려금(3백만 원, 100명)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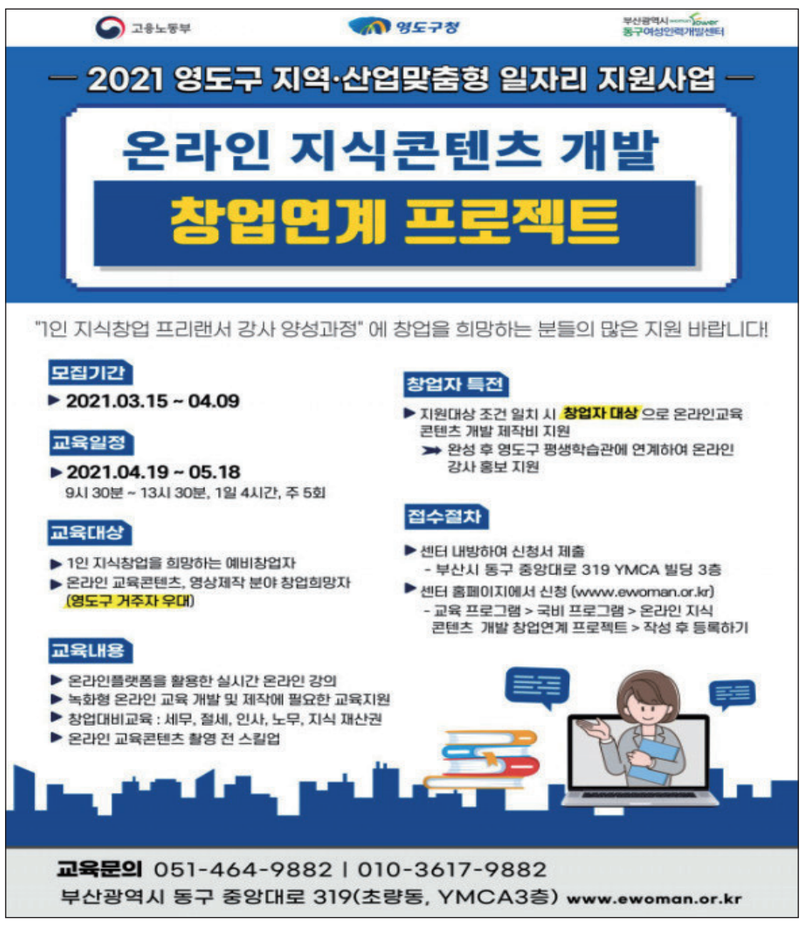
❷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운영 지원(67개 사, 기업당 1,200만 원) ▲수출 지원(34개 사, 기업당 2,500만 원) ▲근무환경개선비(24개 사, 기업당 2,500만 원)와 컨설팅 ▲친환경부품산업 기업(진입희망기업 포함)에는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69개 사, 기업당 2,000만 원)한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운영기관:부산경제진흥원)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총 12억 원을 들여, 부산시 관광·마이스 분야의 거점인 벡스코 제1전시장 1층과 지하 1층에 설치하였고, 전문 직업상담사(6명)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전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알선,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시너지를 발휘해, 부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서부산권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모델을 부산시가 만들어 가겠다"라며, "또한, 동부산에도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마이스 산업의 근로자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보물섬이 키운 남해마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자!

새롭게 바뀐 마늘 포장박스 5월 17일부터 농가 공급

남해군이 남해마늘의 새로운 브랜드인 '대한민국 마늘중심, 보물섬이 키운 남해마늘'과 그에 따른 포장 디자인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에 앞서 남해군은 지난 3월 하순 남해마늘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제출된 주요 '안'은 대한민국 마늘중심 보물 섬마늘, 남해비법으로 키운 남해마늘 등이 논의되긴 했으나, 남해군과 보물섬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녹여내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다수의 안을 만들어 4월 9일부터 4일간 약 500여명이 참여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마늘중심, 보물섬이 키운 남해마늘' 슬로건 및 포장디자인을 확정했다. 또한 포장디자인을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했다.

남해군의 통합브랜드 '보물섬'과 '대한민국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통합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브랜드 및 디자인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남해군과 지역농협은 포장재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군내 지역농협마다 포장재가 달랐던 탓에 소비자에게 남해마늘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남해군은 17일부터 농가에 신규 디자인 마늘포장(택배용)박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농협에서도 기존 재고 포장박스를 소진한 이후 신규 디자인을 적용한 마늘박스를 제작 판매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새로운 남해마늘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통일은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마늘중심, 보물섬이 키운 남해마늘이 새롭게 발을 내딛는 만큼 일선 농가를 위해 남해마늘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금정구 '법정 문화도시' 향한 열띤 논의 펼쳐

금정문화재단, 지난 3일 '제1회 금정문화포럼' 열고 미래 모색

(재)금정문화재단은 지난 3일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제1회 금정문화포럼'을 열고 금정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금정문화포럼은 구의 문화적 기반과 여건을 점검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문화도시는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자체에 5년간 200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이 지원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금정구는 지난달 29일 '문화도시 전문가 초빙 강연'을 열고 문화도시 지정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포럼에는 도시문화발전소 황성현 소장, 대구시 인문사회연구소 신동호 소장, 문화다움 추미경 대표,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 부장, 문화공간 카페머지 조성백 대표, 금정문화재단 김흥수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문화 생태계의 변화와 전국 문화도시들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며 '문화도시 금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공간 활성화방안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정문화재단은 올해 제2회 금정문화포럼 개최에 이어 민관협치를 위한 원탁회의 개최, 지역문화 예술가 자문단 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금정문화재단 정미영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금정'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며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문화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시, '이건희 미술관'유치 적극 추진

고(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2만3000여점에 달하는 미술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 일명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진주시도 뛰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기증 미술품 전시를 위한 별도의 미술관·박물관·수장고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술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이건희 미술관'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한 고인의 유지를 살리고,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남부권, 그 중에서도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진주는 지리적으로 영호남의 중간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등 남부권 대도시권에서 1~2시간 만에 올 수 있어 '이건희 미술관'이 자리 잡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 진주시의 설명이다.

진주시는 지난 2018년 7월 한국경영학회로부터'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지정되어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진주시 지수면은 기증자인 이 회장의 선친이자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이 유년 시절 다녔던 지수초등학교가 소재한 곳으로 이 회장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진주는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이 깃든 곳으로'익히고 실천한다'는 기업가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즉, 진주는 기업가 정신이 태동한 터전이다.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은 제자인 정인홍, 곽재우의 임진왜란 시 의병 활동으로, 백산 안희재 선생의 독립운동으로, 강상호 선생의 형평운동 등 국난 극복과 사회개혁 실천정신으로 진화됐다.

또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GS 허만정 선생, 효성 조효제 회장 등이 기업을 창업함으로써 경제부국을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시설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지방에도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해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해 달라는 게 기증자의 진정한 뜻이다"라며 "위치적으로 남부권의 중심이며 영호남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미술관 건립 시 많은 사람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증자인 이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승화시키고 유지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진주"라며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과 연계한 '이건희 미술관'의 진주 유치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진주는 '색채화의 거장, 한국의 피카소'란 별칭을 가진 박생광 화백과 '동녘의 여대사'로 프랑스 화단에 명성을 알린 이성자 화백 등 한국 현대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걸출한 작가를 배출한 곳이다.

향후 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수장고 포함)과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되면 지역보존센터 역할, 미술관 옆 박물관 콘셉트로 디지털 미디어와 전통회화(한국화, 서양화) 등 예술이 융합된 미래형 미술관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박태완 중구청장, 대형마트 방역수칙 점검

박태완 중구청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 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에 이어 대형마트에서도 현장점검을 가졌다.

중구에 따르면 박태완 중구청장은 6일 오전 11시부터 번영로 475에 위치한 홈플러스 울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점검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울산 중구 특별방역주간'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중구는 현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 운영자와 주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박태완 중구청장은 홈플러스 울산점을 찾아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강조했다.

또 이용객 휴식공간인 휴게실과 의자 등의 이용은 물론,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의 사용도 금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현장의 주민들에게도 최근 울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로부터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없는 청정 중구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 1일에도 학성새벽시장과 구역전시장을 돌며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장흥군, 특산자원 버섯류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 200억 원 확정

장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3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규모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에 진균류 유래 바이오헬스 소재 실증 생산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 전환을 위한 지역 성장 정책으로,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도전하여 선정된 2022년 신규 과제는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이다.

진균류는 포자나 영양 생식으로 번식하는 미생물로 버섯, 곰팡이, 효모 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항암제 등 헬스케어 원료로 사용된다.

그중에서 버섯은 장흥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생산단지인 장점을 살려, 본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하게 됐다.

진균류 관련 사업은 농가가 단순히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버섯균사체를 배양하여 기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제공하게 되는 신산업 전환을 도모하게 된다. 이로써 농가 수익으로는 버섯 원물 대비 4배 정도의 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본 사업은 장흥군 출연기관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주관해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GMP(우수 식·의약품 제조 기준) 생산 지원 등을 총괄하여 추진한다.

참여기관인 천연연자원연구센터에서는 소재 비임상 효력 시험 등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소재 안전성 인증 등을,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유용균주 배양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8,250㎡ 부지에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지원센터시설 구축과 연구 장비 85종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사업종료 이후에는 장비 임대, 기술이전 산업화를 통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자립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자립 기반 확충과 함께 바이오산업 연계 기업 유치와 지역 버섯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R&D 기반 구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광주광역시북구 미디어파사드 공연, 비엔날레 이색 볼거리로 즐거움 더해

어린이날, 5·18 기념 영상부터 광주시립미술관 온라인 전시 영상까지 풍성한 볼거리 제공 예정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외벽을 캔버스 삼아 화려하게 펼쳐지는 빛의 향연인 광주시 북구의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제작된 미디어파사드는 메인작품 '빛의 나무(진시영 作)'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류의 치유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9일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 이후에도 5월 말까지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지속한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지원한 인기 애니메이션인 '브레드이발소'를 특별 상영했다.

5월 셋째 주부터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정록 초대전 그 곳, 그 숨', '리암 길릭: 워크라이프 이펙트' 등의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5월 광주'를 기념하기 위해 북구청 직원이 제작한 브이로그 영상 등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예술성에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을 더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향후 문화산업기관과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공연으로 지역의 특화 콘텐츠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답게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이 집적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지역을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9월 열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해 미디어파사드와 비엔날레전시관 주변 야간경관이 광주를 대표하는 시각미디어 문화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금·토·공휴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비엔날레 광장에서 상영되며 우천 시에는 자동 취소된다.

김덕윤/기자

곡성군, 혁신 커뮤니티 농가살리기 프로젝트 가동

곡성군이 국비 8,600만원을 지원받아 커뮤니티를 활용한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지역혁신과제를 발굴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이번에 '혁신 커뮤니티, 곡성형 농가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과제로 지원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과제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을 통해 곡성군은 강빛리빙랩, 농촌살이 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농가 살리기 비대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강빛리빙랩은 지역혁신가와 마을활동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확대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역할이 될 수 있을 지 기대하고 있다.

농촌살이 체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도시민이 농촌에서 살아보게 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곡성군에서 운영되는 '강빛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완 및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퇴자는 물론 농촌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실버산업에 관련된 청년까지 대상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농가 살리기 비대면 프로젝트는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에게 온라인 판로 구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영상 촬영 등 스튜디오 활용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농산물 온라인 라이브 판매를 진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곡성군의 이와 같은 사업계획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비대면 소규모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업 내용이 독창적이고 코로나 시대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도 농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을 들었다.

군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순창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완료

순창군이 최근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명판 388개를 새롭게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도로명판은 차량용 1개, 보행자용 387개로 보행자 위주의 도로명판으로 설치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차량용과 달리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비교적 낮은 높이에 설치해 보행자들이 도로명주소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군은 오는 9월말까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총 13,910개)의 이용시 불편 해소 및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명판이 부족한 교차로 위주로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해남군 국도77호선 도로 연결"화원권역 활성화 선제 대응"

통합조정회의 개최, 부서별 대응방안 논의

국도77호선 해남 화원~ 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오는 8월 착공 예정인 가운데 해남군은 화원권역 활성화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부서 간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사는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신안군 압해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3.49km, 사업비 5,005억원이 투입,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해남구간은 5.95km, 왕복2차로(4차선)으로 계획되었다.

주요사업으로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까지 2.73km를 해저터널로 연결하고, 휴게시설과 전망대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 신안, 목포 3개 시군을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잇게 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와 연계해 주민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 및 솔라시도관광레저기업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관광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77호선 구간내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비롯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우수영 울돌목 등 해남지역 관광자원을 비롯해 목포신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완도·신안의 해양관광지 등이 연계돼 있다.

특히 해남군은 목포구등대~양화간, 화원 후산~장수간 해안도로 건설공사를 추진중으로, 화원 매월리를 시작으로 목포구등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 약 23km를 잇는 인프라가 구축돼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화원산단은 국가뉴딜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배후단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화원 구림리에서 매월리 간 2.9km 진입도로를 개설해 산단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통과 관광, 경제 등 분야별 기대효과와 군의 대비사항을 꼼꼼히 살펴 분야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전망대와 연결되는 다목적 수직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도로 확포장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방안, 화원조선산업단지 연결 도로 개설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명현관 군수는"국도 77호선이 연결되면 우리군 교통은 물론 물류와 산업, 관광활성화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며"지역발전의 귀중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전남도, 전국 첫 '국산김치자율표시제' 도입

전남산 소비 장려 위해 9월까지 5천개소 인증 목표

전라남도가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음식점 등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이는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세계 최고 품질인 전남산 김치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기관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전남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5천 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시군 농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내역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해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인증 받은 곳은 인증마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견인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품질의 전남산 김치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도록 김치 소비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수출이 확대되도록 원재료 저장물류 및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해 김치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여행전문잡지 KTX매거진도 반한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

'미식도시 고창'을 대표하는 열다섯 곳의 맛집이 여행·문화 전문잡지에 소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매월 10만부 이상 발행되고 KTX와 ITX 새마을호 등에 비치되고 있는 코레일 KTX매거진 5월호에 전국맛집탐방 장소로 고창밥상이 추천됐다.

KTX매거진은 '고창 자연이 선물한 건강 밥상'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전북 고창에서 자란 농산물과 수산물이라 믿음이 간다"며 "그 자원으로 정갈한 밥상을 차리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 15곳을 소개한다"며 고창의 맛을 알렸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은 풍요로운 고장 고창의 청정 농산물로 요리하는 음식점을 모아 만든 브랜드다. 현재 땅·물·불의 세 가지 테마로 15곳의 외식업체 고창의 맛을 전하고 있다.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을 아우르는 예부터 살기 좋은 땅이었다. 무기질과 미네랄을 함유한 비옥한 황토가 군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고, 2000년 전 마한시대에는 보리와 갈대가 펼쳐진 땅이라는 의미의 모로비리국이 문명을 꽃피웠다.

특히 해양 생태계의 보석인 고창 갯벌에서는 품질이 뛰어난 장어, 바지락, 백합이 자라고,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의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이영윤 과장은 "월간 KTX매거진을 통해 청정 자연 환경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고창밥상으로 오감만족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정읍시, 5월의 역사 인물에 손화중·박만환 선정!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천석꾼 유학자 박만환 선정

정읍시가 5월의 정읍 역사 인물에 손화중과 박만환을 선정했다.

시는 정읍의 인문·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두 명씩 정읍을 빛낸 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5월의 역사 인물은 동학농민혁명의 삼걸(三傑) 중 한 명인 손화중과 대한제국기 정읍에 영주정사와 영양사를 세워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박만환이 선정됐다.

손화중은 1861년 정읍시 과교동에서 태어난 동학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전봉준·김개남과 어울려 갑오동학혁명의 삼걸로 일컫는 인물이다.

1892년 삼례 교조신원운동과 1893년 보은 장내리 집회 등에서 많은 교도를 동원하며, 뛰어난 지도자로 능력을 발휘했다.

1894년 동학군의 전주화약 후에는 나주지방으로 가서 폐정개혁을 지도했으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실패 후 광주로 후퇴했다.

1895년 체포되어 여러 차례의 심문 끝에 전봉준·김덕명·최경선·성두환과 함께 처형됐다.

박만환은 1849년 정읍시 고부군에서 출생하였고, 통훈대부 행 의금부 도사, 삼례 도찰방을 역임하다 사임한 유학자다.

1903년 후학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영주정사를 세운 뒤 1년에 300석씩 출연해 학생들의 숙식을 책임졌다.

박만환은 동학농민혁명에 이어 의병운동과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한 천석꾼이었다.

박만환의 아들 박승규 역시 몸소 독립운동을 꾀했으며, 1919년 승동학원을 설립해 교육 구국에도 힘을 쏟았다.

영주정사와 승동학원은 대한제국기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상당수 길러냈으며, 영주정사는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와 한말 유학 교육기관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역사적·예술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재조명되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역 곳곳에 숨겨진 역사 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임실군, 사계절 꽃만발 옥정호 경관조성 박차

임실군 옥정호 순환도로에 장미꽃길이 아름답게 조성되고 있다.

옥정호 순환도로변 운암교 인근에 있는 기존화단의 재정비를 통하여 사계절 꽃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쌈지화단을 조성, 옥정호 경관의 봄철 단장을 시작했다.

수국과 금낭화, 구절초 등의 관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화단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또한 사계절 동안 오색꽃의 아름다운 빛깔을 감상할 수 있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쌈지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회장 성문자)가 지난 30일 지방도 749호선인 옥정호 순환도로 변에서 장미꽃길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활동은 가득한 봄기운과 함께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향하는 나들이객이 많아짐에 따라 아름답고 깨끗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른 새벽부터 30여 명의 생활개선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약 15km 구간에 걸쳐 덩굴장미 유인과 경관초제거 및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에 온 힘을 쏟았다.

옥정호 순환도로는'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고 산과 호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뽐내고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특히, 옥정호 주변 붕어섬의 빼어난 경관 및 물안개 길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전국에서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져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성문자 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장은"농사일로 바쁜 시기임에도 이른 새벽부터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환경정화 활동으로 옥정호 순환도로가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 변신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과 옥정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발길 닿는 곳곳에 매력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며"아름다운 옥정호 경관을 보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본격 출범... 개관식 성료

2021년 새롭게 개설된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가 본격 출범에 나섰다. 부안군은 지난 2020년 9월 공사를 시작한 후 약 7개월만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5월 4일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부안읍 서외길 17)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 4일 11시 코로나19 방역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권익현 부안군수 및 부안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학생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부안캠퍼스 현판 제막식과 개관 테이프커팅식 등 개관식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식후 박병모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장의 안내로 시설견학을 통해 앞으로 지역 혁신 인력과 에코 농산업 생산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시설 현황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는 산학협력을 통해 개설된 계약학과(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로, 지난 3월 신입생 30명을 모집하는 데 41명의 군민이 지원하여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 개강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학기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나, 앞으로 학생들은 본관 1동(3층) 및 별관 1동(2층) 건물로 총 15실로 구성된 캠퍼스 건물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강의와 미디어 창작, 에코푸드 조리 실습 등을 수강하여 에코농산업벤처산업기사 · 사회적치유농업기사 · 전통약선음식조리사 등 3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변혁의 시대에서,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부안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어 부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완주군, 국내 수소경제 1번지 향한 인프라 확충 '착착'

완주군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으며 국내 수소경제 1번지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수소 시범도시 완주군은 지난해 6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했으며, 곧바로 전북 1호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도 확정하는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나가고 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단 연구용지에 위치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500억 원 가량 투입해 수소용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시험동과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7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수소추출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전북에 구축되는 1호 수소생산기지라는 의미가 크다.

봉동읍 둔산리 일대에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해 수소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 공동주택 연료전지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수소 공급기지,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통합안전 운영센터 사업 등이 차례차례 추진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또 지난달 말에 전국 80여 개 군(郡) 지역에서는 최초로 수소 전기버스 1호차를 도입,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여줬다. 전 좌석 안전벨트와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춘 저상형 수소 전기버스는 1회 충전으로 약 430㎞를 주행할 수 있으며 봉동에 위치한 상용 수소충전소에서 13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박성일 군수는 "수소시범도시 지정, 전국 최고 수소충전소 구축, 국내 유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등의 쾌거를 이루며 '수소도시 완주'의 위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지역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북도, 정치권 등과 협력해 다각적인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충청남도, '걷쥬'10만 명이 지구 532바퀴 돌았다

충남도는 충남형 스포츠 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함께하는 행복 걷기 '걷쥬'앱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걷쥬 가입자 10만 명 돌파는 지난해 말 가입자 수 3만 5000명 대비 6만 5000여 명(185%)이 늘어난 수치이다.

걷쥬 앱 가입자 수는 5월 3일 기준 10만 299명으로 남성이 4만 3394명, 여성이 5만 6095명이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1만 7291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고 아산 1만 6232명, 서산 8938명, 당진 7588명, 보령 7274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 1만 3571명 △20대 7366명 △30대 1만 6308명 △40대 2만 5340명 △50대 2만 365명 △60대 1만 1791명 △70대 4773명 △80대 이상 785명이 가입했다.

이 중 최고령자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97세 어르신이며, 최연소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7세 어린이다.

10만 번째 참여자로는 천안시 거주 10대 청소년으로 기록됐다.

가장 많이 걸은 사람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60대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18만 걸음(step)을 기록해 일일 평균 걸음 수가 5만 1520걸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쥬 앱 참여자의 총 걸음 수는 지구 532바퀴(2131만 4946㎞)를 돈 것에 해당하는 304억 5000만 걸음에 달한다.

이를 탄소 중립 효과로 환산해보면 298만 4000㎏의 탄소를 줄인 것으로 공익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 꾸준한 걷기는 △우울증 완화 △심장병 예방 △다이어트 △노화로 인한 기억장애 개선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골다공증 예방 등 7가지 건강효과를 가져와 도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걷쥬는 일상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이달 중 걷쥬 앱 내에서 '10만 돌파'를 기념하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스포츠 복지, 충청남도가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행복 걷기 '걷쥬'정책을 추진 중이다. 걷쥬를 통해 모든 도민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충남 공동체를 형성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이 걷쥬 앱을 쉽게 가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조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할아버지·할머니 걷쥬 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걷쥬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 등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가입한 후 참여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동해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동해중부전해상의 풍랑특보 발표에 따라 동해안 일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오늘 밤부터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8~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 또한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번 기상악화는 여러 악재가 맞물려있어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 등은 출입을 자제해 달라"며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등원/기자

세종시, 명품도시 세종 알릴 시민참여단 활동 본격화

6일 발대식…슬로건 개발·디자인 등 전 과정 주도적 참여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시청 여민실에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열고 세종시의 핵심가치를 담은 도시브랜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도시 정체성을 찾고 미래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개발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초중고생 9명을 포함해 성인 107명 등 총 116명이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선발됐다.

이로써 시민참여단은 외국인 10명을 포함해 총 126명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시 슬로건 개발부터 디자인 작업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인원을 시민참여단 30명으로 한정해 온라인과 병행해 실시됐으며, 도시브랜드 개념과 시민참여단 활동내용 안내, 향후 조별 토론을 위한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시민인식 조사, 슬로건 개발 아이디어 발굴, 디자인 개발 방향 등을 정리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연내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되는 도시브랜드는 내년 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성대한 선포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브랜드는 세계에 명품도시 세종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횡성군, 어린이날 유공지자체 장관표창 수상

횡성군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친화도시조성 유공지자체」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보호, 안전, 인권·권리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자 당해 표창계획을 추진하였다.

군은 2018년 4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18일 도내 첫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자체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도내 유일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다.

올해 2021년 상반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어린이기자단', '아동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조성 업무 추진단 추진상황보고회의가 예정 중에 있다. 그밖에 옴부즈퍼슨과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합동으로 아동친화도시 27개 전략과제에 대한 수행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100인 아동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 다양한 아동친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인구 46,000여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특색에 맞는 아동친화정책과 군 자체적으로 아동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펼쳐왔기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번 어린이날 유공지자체 장관 표창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장신상 군수는 "이번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지자체 장관상은 횡성군민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하여 받은 값진 성과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나아가 가족 친화적인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허태정 시장, 코로나19에도 소중한 어린이 동심 지킬 것

대전시는 5월 5일, 제99회 어린이 날을 맞이해 대전어린이회관을 방문 감염병 대응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전어린이회관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숲체험관과 사계절 상상놀이터에 사전예약을 받아 무료입장을 실시했고 및 포토존, 동물가족화 그리기,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무료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린이회관 시설 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회관 운영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어린이회관 직원들을 찾아 일일이 격려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또래와 함께하는 소중한 장소인 만큼 대전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정선군,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체계화 한다.

정선군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특법 1·2·3종에 해당하는 188여개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시설물 안전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 10층이상의 건축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로서 5월 24일까지 공고 후 접수를 받아 6월 7일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시특법 시행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건축물·도로·터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에는 총 188개의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으며, 1종 시설물은 강원랜드, 메이힐스 등 대형건축물 4개를 비롯해 2종 시설물은 교량 14개, 건축물 32개, 상하수도 13개, 옹벽·절토사면 27개 등 86개가 있고 3종 시설물은 102개가 있다.

최근수/기자

강릉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작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영농자재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농업인 수당'지급 일정을 앞당겨 지난 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시는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 4.부터 2. 26.까지 접수하였으며, 부서 검토과정과 강릉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지급대상자 5,114명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당 연 70만 원을 강원상품권 42만 원, 강릉페이 28만 원으로 있다. 총 지급은 액 35억 7980만 원이다.

이번 수당은 지역 내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상품권과 강릉페이로 지급되며, 강원상품권(42만 원)의 경우 주소지 지역농협에서(신분증, 안내문 지참) 수령할 수 있고 강릉페이(28만 원)는 4일부터 충전된다.

아울러 지원사업을 몰랐거나 신청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6월 중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으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김회상 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농업인수당 지급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으며,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영동소방서, 지하실 화재대비'배연차 조작훈련'

영동소방서(서장 김영준)는 6일 소방서 훈련장에서 지하실 등 밀폐공간 화재발생 시 구조대원의 원활한 진입과 요구조자의 안전을 위해 배연차 조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연차는 화재 시 발생하는 다량의 연기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하는 동시 외부의 맑은 공기를 화재현장 내부로 송풍해 요구조자에게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소방장비를 말한다.

이날 훈련은 △배연차의 흡입 및 배출 송풍장치 조작 △송풍기 미분무 장치조작 △발전기, 조명탑 조작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다양한 화재 현장 상황에서의 숙달된 장비 조작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 밝혔다.

최만식/기자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 "훈훈한 무료 나눔" 실천하다

책 옷(생활필수품) 무료 지원하는 '하얀 나눔 쉼터' 운영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이 무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하얀 나눔 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생활에 지친 국민들께 작은 웃음꽃을 피우게 하고 싶어 '하얀 나눔 쉼터'를 열게 되었다며 김용철 회장은 행사취지를 밝혔다.

'하얀 나눔 쉼터'에는 살이 쪄서 작아진 옷들, 다 읽고 방치된 책 등 나에겐 이제 필요 없어진 물건들이 다 모였다. 평일임에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종종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번에 3가지씩 가져 갈 수 있다.

김 회장이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과 옷 등을 기증받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지역공동체 신뢰 회복과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무료 나눔'이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독지가들께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책과 옷을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책, 옷, 특산물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책은 사람의 인성을 바꾸고 대인관계와 사업에 성공적인 안내자가 되므로 책을 읽는 붐을 일으켜 보고 싶어서이고 ▲옷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작은 기쁨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며 ▲특산물매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하고 싼 값에 질 좋은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상품 무료홍보 및 판매를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특산물매장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무료로 홍보·판매하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양평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헌책, 헌옷, 모자, 가방, 신발 등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증 받고 있으므로 힘든 이웃을 도와주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00번지 건물 옆 공터에 마련된 '하얀 나눔 쉼터'는 네이버지도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무료 나눔에 동참을 원하는 독지가는 T.1600-7527 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2020년 1월 15일 취임한 양평군체육회 민선1대 회장이다.

김용철 회장은 지난해 1월 15일 초대 민선 양평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김 회장은 '후보 시절,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한불란(信汗不亂)을 체육인의 신조로 삼아왔다며 "군 체육회의 부족한 재원과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체육인들의 발목을 잡아 흘린 땀이 헛되게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래서 "양평군체육회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진바 있다.

그리고 체육회장 취임식에서는 "히딩크 감독보다, 박항서 감독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낳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체육회 기금 3억 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말해 체육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철 회장은 앞으로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Number one을 넘어 Only One 체육 1위 도시 "양평"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양평군체육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양평군체육회는 1975년 설립되어 체육을 통해 46년 째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에 힘써 오고 있다.

양평군체육회는 ▲희망: 장애인 선수 발굴 및 육성 ▲건강: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행복: 사회활동 참여,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 ▲사람: 체육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범 군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양평군 및 국가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목별 가맹단체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승마 등 실외종목 및 농구, 배구, 볼링, 당구, 수영 등 실내종목과 게이트볼, 수상웨이크, 모터스포츠까지 총37개 종목별 가맹단체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2020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인라인스케이트/ 볼링/ 축구/ 방송 댄스/ 배드민턴)수업 및 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금 전달(체육발전기금 300만원), 2020년 후반기 체육진흥공모사업 양평고등학교 카누부 물품지원전달(700만원)을 했다.

양평군체육회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를 통해 연탄 4,000장(300만원 상당)을 전달하여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양평군체육회의 쓰담쓰담(쓰담: 쓰레기 담기)릴레이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1,200만원을 통 크게 기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체육인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원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특히 어르신을 비롯한 질병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던 양평군 자율방범대원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도 전달했다.

김용철 회장은 '새로운 성경' 160권(10부로 구성, 각 부당 16권) 대역자이기도 하다. 미국 LA, 일본, 캐나다에도 보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술을 한잔 할 때면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라는 건배를 한다고 하니 이웃을 생각하는 김 회장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 앞에서는 크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며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모범 헌신인' 김용철 양평군체육회 회장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성율/기자

아산시, 제8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성료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연계 예정

아산시가 4일 오세현 시장을 비롯한 수료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제8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뉴딜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인 ㈜어번르네상스컴퍼니가 주관해 지난 4월 14일 개강 이후 이론특강, 마을 현장답사, 워크숍 등 맞춤형 교육을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영인면과 온양6동의 결과물 발표, 도고면 주민 사례발표, '농촌에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함께 진행됐으며, 이어진 수여식에서는 오세현 아산시장이 직접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전하며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열정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 발전 가능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수료 주민들과 소규모 도시재생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 및 광역 뉴딜사업과 연계해 쇠퇴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광명시 소하2동 새마을,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수건세트 전달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서호준)는 지난 3일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혼호), 새마을부녀회(회장 장희남) 주관으로 관내 경로당 24곳에 수건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오랜 노고에 감사하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박혼호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고 새마을 부녀회 장희남 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호준 소하2동장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을 실천하며 나눔의 소하2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수성구 수성스트링스, 이웃돕기 성금 기탁

수성스트링스(대표 손재민)는 지난 4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학생단원들의 용돈을 모은 성금 140만원을 전달했다. 수성스트링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모인 연주봉사단체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학생단원들의 저축한 용돈 111만원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수성구는 전달 받은 성금을 희망수성 천사계좌에 적립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성금은 이웃들이 삶의 희망을 찾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인천시, 2020년 청렴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자율적 내부통제 최우수부서'마이스산업과', 최우수기관'연수구'선정

인천광역시에서는 5월 6일'2020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와'2020년 청렴 마일리지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부서 5개부서와 유공공무원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오류나 비리를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청렴교육 이수, 청렴시책 참여, 청렴서약 이행 등 청렴활동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능동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인천시에서는'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를 통해 시 최우수부서로 마이스산업과, 우수부서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군·구 최우수기관으로 연수구, 우수기관으로 계양구, 부평구를 각각 선정해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5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청렴 마일리지 평가'에서는 최우수부서로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우수부서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육아지원과가 선정되어 개인평가 우수자(6명)와 함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특히,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청렴문화 확산의 모범이 된 우수부서에는 청렴우수부서 인증 표지판을 함께 수여했다.

한편, 시 감사관실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청백-e 모니터링의 날'로 운영 중이며, 5월 중 청백-e 시스템 사용자 화상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월 10일을'청렴의 날10.0'으로 지정해 부서별 청렴교육·캠페인 실시, 청렴문자 발송, 청렴해피콜 실시, 내·외부 청렴실천 자가진단 등 모든 청렴정책을 전부서가 함께 점검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주신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공직자 스스로 행정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태안해경, 성창현 서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산본부 대원 2명 감사장 수여

최근 태안 구름포 인근 갯바위 실종자 수색발견 공로 등 치하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어제 4일 서장실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서산본부(회장 김문환) 소속 조효근 수상팀장과 방인열 구조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태안해경의 실종자 수색업무 지원에 나서 그 전날 신고된 실종자가 갯바위 밑에 숨진 채 있는 것을 발견해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성창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드넓은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양사고로 인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해양구조협회가 그 중추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을 다해주고 있다. 최근 새로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서산본부가 이번에 큰 성과를 이뤄 이 점을 더욱 증명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장을 수상한 조효근 수상팀장과 방인열 구조대원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산본부 회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지킴이로서 주어진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소속 대원의 감사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한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의 김문환 서산본부 회장은 "실종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사고예방·대응에 있어 해양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서산본부는 지난 2월 24일 인준을 받아 회원 294명으로 출범해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상 수색구조 등 지역사회 해양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창작 초연, 뮤지컬 <금악 禁樂>

8월 개막 앞두고 주역 공개, 5월 7일 티켓 오픈!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예술감독 원일) 창작 뮤지컬 〈금악 禁樂〉이 8월 18일~ 2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뮤지컬 〈금악 禁樂〉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신라에서 만들어졌던, 절대 연주되어서는 안 될 금지된 악보인 〈금악〉을 둘러싸고 장악원(掌樂院)에서 펼쳐지는 기묘한 사건을 담은 판타지 사극 뮤지컬이다. "욕망하라. 갈망하라." 귓가에 속삭이는 금지된 악보 〈금악 禁樂〉. 그 시대적 배경은 조선 순조 재위 말기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제작하는 뮤지컬의 의미

뮤지컬 〈금악 禁樂〉은 '장악원(掌樂院)'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에 한국음악의 창법을 적용한 작품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우리의 색채를 품고 있는 한국뮤지컬이다. 현대음악계에서는 서양음악이 우리 창법을 도입하여 시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음악이 주종인 뮤지컬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시도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예술단체는 현재 극히 드물다.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에 전통음악의 생성원리와 고유한 창작음악 개념을 접목하기 위해 창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경기시나위오케스라'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다. 새로운 체제의 창작 뮤지컬 제작을 새롭게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공연에 예술적 상상력을 과감하게 실현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원일'을 위시하여, 기하학적 페인팅과 회화 작품으로 유명한 현대미술작가 '양대원'이 아트워크에 참여하였고, 한국 캘러그라피 선구자인 멋글씨예술가 '강병인'도 함께 한다.

실력파 뮤지컬 배우 & 뮤지션의 절묘한 조합

뮤지컬 〈금악 禁樂〉의 캐스팅은 실력파 뮤지컬 배우 & 뮤지션의 절묘한 조합으로 신선함을 불러일으킨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의 비밀을 풀어내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성율〉역에는 '나하나'가 맡는다. 뮤지컬 『위키드 Wicked』에서 주인공 '글린다'역할로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뮤지컬 배우다.

예악을 완성하여 위대한 조선을 꿈꾸는 왕세자 〈이영(효명세자)〉역에는 서울예술단 출신으로 『윤동주, 달을 쏘다』, 『레드북』 등 뮤지컬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력파 배우'조풍래', 차세대 뮤지컬 배우 중 대형 신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황건하'가 맡는다. 황건하는 다양한 음역대를 소화하는 놀라운 가창력을 뽐내며 『팬텀싱어3』 준우승을 차지한 〈라비던스〉의 멤버다.

스릴 넘치는 젠더프리 캐릭터 〈갈〉역에는 '추다혜차지스'의 만능 뮤지션 '추다혜', 330여명의 치열한 공개오디션을 거쳐 제작진들로부터 최종 선택을 받은 뮤지컬계의 숨은 실력파 '윤진웅'이 맡는다.

시대의 소용돌이에서 예악을 지키려는 장인정신의 예술인 관현맹인 〈홍석해〉역에는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아이콘인 '남경주', 세도정치의 핵심 권력자 〈김조순〉역에는 정통 연극배우 경기도극단의 '한범희', 장단과 추임새가 뛰어나며 '성율'을 짝사랑하는 죽마고우 〈임새〉역에는 신예 젊은 판소리 소리꾼 '조수황'을 비롯하여, 연극배우 '민정기'(조만영 역), 경기민요 소리꾼 '함영선'(금선 역), 뮤지컬배우 '김의환'(혁 역), 무용수 '심재훈'(겨울 역) 등 기존의 뮤지컬 무대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한 캐스팅의 조합으로 작품의 풍미와 깊이를 더할 전망이다.

국내 최고의 뮤지컬 전문 창작진 참여

대본은 뮤지컬 『니진스키 Nijinsky』의 무서운 신예, 김정민 작가가 맡아 탄탄하면서도 극적인 스토리를 구성한다. 천재 발레리노 '니진스키'의 삶을 그린 뮤지컬 『니진스키』의 작곡가 '성찬경', 창극과 경극의 만남으로 큰 이슈를 모은 창극 『패왕별희 Farewell My Concubine, 覇王別姬)』의 작곡가 '손다혜', 음악분야에서 전방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음악감독 '한웅원', 그리고 이번 작품의 연출과 작곡을 맡은 한국음악의 트렌드 리더 '원일', 『크리틱스초이스 댄스 페스티벌 Critic's Choice Dance Festival』에서 우수 안무가로 선정된 안무가 '조인호' 등. 이들은 한국적인 몸짓, 소리, 창법을 현대적으로 구현해내며, 소리가 보이고 몸짓이 들리는 감각적인 방식으로 한국적인 창작뮤지컬을 새롭게 선보이고자 한다.

뮤지컬 〈금악 禁樂〉의 배경이 된 시기가 19세기 초, 조선의 왕권이 가장 약해졌던 순조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대적 재현이 아니라, 시대의 상징성이 담긴 무대, 의상, 영상, 조명으로 조선의 양식을 모던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대미술계의 거장 '박동우' 무대디자이너를 비롯하여 조명디자이너 '백시원', 영상디자이너 '정재영', 의상디자이너 '최인숙' 등 뮤지컬 분야 유수의 창작진이 대거 참여한다.

뮤지컬 〈금악 禁樂〉은 5월7일(금) 14시부터 인터파크·경기아트센터를 통해 티켓오픈을 진행한다.

전순희/기자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최초, 랜선 페스티벌 개최

시공간을 초월한 BOF 최초 랜선 페스티벌 개최로 전 세계 K-POP팬들과 안전한 소통

부산시는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발 한류 문화 종합축제인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usan One Asia Festival)'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페스티벌을 위해 BOF 최초로 한류와 부산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랜선 종합축제로 마련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 강화된 콘텐츠로 돌아왔다. 4일간의 행사 기간에 ▲K-POP 콘서트 ▲파크 콘서트 ▲BOF 랜드 ▲B-ART ▲메이드인부산 등 총 5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홈루덴스족*이 늘면서 랜선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있어, BOF의 주 타깃층인 MZ(밀레니얼세대+Z세대)에게 뜨거운 반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POP, 파크 콘서트는 VLIVE를 통해 230개국에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그 외 유튜브, 라인(LINE), 올케이팝(allkpop)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 한류팬들에게 부산의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2021 BOF는 최고의 출연진과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한 고품격 행사로 준비된다. 사전 온라인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BOF 랜드'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매일 진행되며 박준형, 돈스파이크, 초아 등 유명 셀럽과의 협업을 통한 BOF만의 오리지널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부산음악창작소 음반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나의 노랑말들 ▲오느린윤혜린 ▲호재이 등을 비롯한 부산지역 레이블 공연팀의 화끈한 무대도 랜선으로 즐길 수 있다.

2021 BOF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K-POP 콘서트'는 5월 8일에 막을 올린다. ▲슈퍼주니어 ▲강다니엘 ▲마마무 ▲NCT DREAM ▲펜타곤 ▲엔하이픈 ▲더보이즈 ▲위아이 ▲러블리즈 등 한류 대세가 총출동하는 막강 라인업을 선보인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인 '파크 콘서트'는 5월 9일에 개최되며, ▲김범수 ▲거미 ▲B1A4 ▲폴킴 ▲제시 ▲픽보이 등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아트테이너 김충재·섭섭 작가와 부산소재 대학생들(10명)이 기획한 공공아트(벽화) 프로젝트 사업인 'B-ART'는 금정구 금사동 '예술지구P'와 부곡동 '늘푸른아파트' 입구에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옷을 입힌다.

K-POP 콘서트에서는 '위아이'가 부산 주요관광지인 마린시티, 광안리, 해운대 등을 직접 다니며 생생한 여행의 현장감과 설렘을 전한다. 깜짝 게스트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핫플레이스를 직접 소개하기도 하는 등 BOF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랜선 여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메이드인 부산'에서는 부산지역 우수 문화 공연 작품인 '원으로 만드는 아시아'를 퍼포먼스 시네마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오륙도 선착장 등 부산 야간명소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영상을 '설레는 하룻밤의 꿈'이라는 이야기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번 2021 BOF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행사장은 안전(방역) 관리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구역별로 나눠 100명 미만(출연, 연출진 등 포함)으로 인원을 구성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안전한 행사로 치러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랜선으로 돌아온 BOF가 우리 국민과 K-POP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지만 익숙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산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인천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인천시향의'로맨틱시리즈'

5.14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천시립교향악단 로맨틱시리즈

인천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이병욱)이 마음에 알싸하게 스며드는 명곡들을 만나보는 '로맨틱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를 선보인다. 5월 1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신비로운 선율들"이라는 부제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3개의 곡을 들려준다. 첫 곡은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이다. 목관의 화음에 의한 몽환적인 도입과 요정의 희롱을 연상케 하는 섬세하고 경쾌한 현파트를 시작으로 꿈과 같은 즐거운 정경이 펼쳐진다.

뒤이어 스페인의 맹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즈 협주곡'을 들려준다. 그가 작곡한 10여 편의 기타곡 중 가장 유명한 곡으로 1940년 마드리드 음악원의 기타 교수이자 명연주가인 사인스 데 라마사에게 바쳤다. 이 곡은 국왕의 별궁이 있던 스페인 중부 아란후에즈의 역사, 그리고 그 부근에 거주하는 집시들의 생활환경을 보고 영감 받아 작곡되었다. 민요적인 재치와 회고적인 애조가 띤 선율, 집시풍의 격한 리듬, 스페인 특유의 이국적 뉘앙스와 다이나믹한 멜로디가 인천시립교향악단과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의 품격있는 연주로 해석된다.

후반부는 슈만의 암흑을 벗어나 빛을 찾는 여정이 담겨있는 교향곡 2번이 연주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심기일전하여 야심차게 착수한 이 곡은 좌절을 딛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웅적인 분투를 담고 있다.

슈만의 다른 세 편의 교향곡과는 달리 고통과 좌절 속에서 작곡된 작품으로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서사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클라라와 함께 바흐의 작품들을 연구했던 과정들에 도움을 받아 정교하고 깊이 있는 대위법을 보여준다.

'로맨틱 시리즈Ⅱ. 신비로운 선율들'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남/기자

안산중앙도서관 5월 문화의 날 '최성애 박사 초청 강연 및 어린이 뮤지컬 공연'

안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심리상담 전문가 최성애 박사(HD 행복연구소 소장) 초청 강연 및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최성애 박사 초청 '코로나 시대 내 아이와 소통하기' 강연은 코로나19로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부모와 자녀의 감정 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최성애 박사는 현재 'HD 행복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며, 'KBS 아침마당', 'EBS 다큐프라임' 등 다양한 방송출연과 강연을 통해 가족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의 치유활동을 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수업',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청소년 감정코칭' 등이 있다.

또한 28·29일에는 '집에서 즐기는 어린이 뮤지컬(제작 아트컴퍼니 행복자)'이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을 찾아간다.

먼저 28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엄마는 안 가르쳐 줘', 29일에는 '맥스 루케이도'의 그림책 '넌 특별하단다'를 원작으로 한 스테디셀러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한단다'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사전접수자에게 발송되는 접속 링크 문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또는 그 주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강연과 뮤지컬 공연은 오는 12일 오전10시부터 안산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최근수/기자

광주광역시서구,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 모형 봉축탑 설치 점등행사

광주 서구는 불기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을 본떠 5m 높이의 모형으로 봉축탑을 설치하고 점등행사를 가졌다.

어제 저녁 6시 30분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광장 앞에서 진행된 점등식 행사는 광주불교연합회 주관으로 서구민과 불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소화하게 진행됐다.

범종 5타로 시작된 점등행사는 봉축탑 점등에 이어 탑돌이로 진행되었으며, 봉축탑 점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고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한편 이 봉축탑은 이달 25일까지 존치되며, 야간에는 불을 밝혀 버스터미널을 찾는 내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봉축탑 설치는 특정 종교의식을 떠나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하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설치했다"며 "시민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극복하여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세종시, 공공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돕는다

세종시청-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매칭 상담회…우선구매 60억 목표

세종특별자치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과 에비뉴힐에서 '공공구매 온라인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공기관과의 접점을 마련해 판로 확대는 물론, 구매촉진을 통한 공공구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종시, 산하기관 등 66개 부서 구매담당자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8곳이 참석했으며, 기관-업체 간 온라인 매칭을 통한 구매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단순 정보전달 형태의 홍보방식을 취해왔지만, 올해는 구매 수요를 조사한 후 이에 따른 맞춤형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방식으로 전환, 구매의 효율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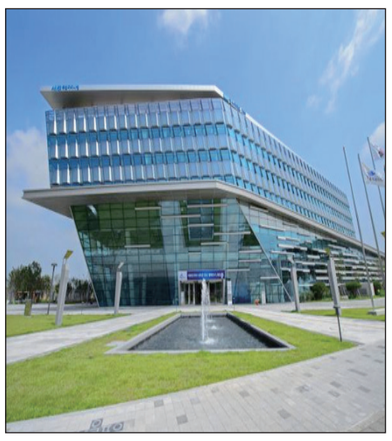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실제구매까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온라인 영업활동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매칭된 기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구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정('19.12월 제정)으로 2020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59억 5,400만 원(2.5%)의 성과와 2021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60억 6,900만 원(3%)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나서고 있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매칭상담회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매칭상담회를 세종시 공공기관으로 확대·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광주광역시서구,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장터 개장

가정의 달 맞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20여 개소 참여

광주광역시 서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나섰다.

광주 서구는 오는 7일(금) 오전 10시부터 서구청 앞 야외광장과 로비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장터'를 마련한다.

이번 장터에는 서구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역농가 등 20여 개소가 참여해 각종 식품류 및 수공예품, 농산물 등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 내 화훼시장을 돕기 위해 카네이션, 프리저브드, 각종 꽃다발 등도 판매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인식확산과 판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장터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스마트 스토어 개설지원 등 사회적경제의 판로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신한아이타스, 주식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렉셔널과 MOU 체결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5월 4일 디렉셔널(대표 이윤정)과 여의도 신한아이타스 본사에서 '주식 대차거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자본시장펀드인프라 리딩 기업으로 종합운용사, 전문사모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리츠(Reits), AMC, 증권사 등 200여 곳이 넘는 기관에 신탁자산 펀드회계관리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렉셔널은 개인 투자자 간 P2P방식의 주식 대차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기관들의 주식 대차거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주식 대차 거래는 기관들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신한아이타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기존업무 이외 여러 편리한 기능과 거래내역의 보관 및 조회 등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장중 필요한 대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대여풀이 시스템 상으로 제공되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실시간 거래와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양사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발전시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증권사를 통한 대차시장도 함께 성장시켜 나갈 전망이다.

신한아이타스 DT신사업추진본부 김창수 상무는 "디렉셔널과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하여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대구시'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선정

전국 6곳 중 달서구 "회춘'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선정, 국비 4억원 확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녑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달서구「'회춘'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생업 안전망 및 디지털시스템 구축과 감염병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수성구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 사업'에 이어 올해는 달서구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지역 골목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달서구의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총 8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골목상권 가로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방역시스템 구축 등 낙후된 상권의 인프라를 적극 개선하고,

대구시 및 달서구 지자체 재원 4억원을 활용해 골목상권 운영지원을 위한 디지털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발전 컨설팅,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번영회와 지역주민 등 수요처와 대구시, 달서구,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등 지원기관이 협력해 '코로나19 극복 골목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관리 및 운영 전문인력을 배치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골목상권 활력 회복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에도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중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30개소를 조직화해 공동마케팅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골목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골목상권의 구성원인 상인과 고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콘텐츠와 인프라, 커뮤니티가 결합한 특색있는 골목상권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시와 구·군의 유관부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골목경제 육성 크리에이터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해 추진 중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골목경제권 육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예정으로 대구의 골목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경기도,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등으로 수소경제 선도지역 자리매김

경기도, 수소융합 테마도시 통해 수소 산업 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등을 포함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저탄소 도시 구현을 통해 투자 유치·도민 인식 전환·수소 생태계 확산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수소융합 테마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산 수소시범도시 조성, 평택 수소교통복합기지 및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경기도형 수소융합클러스터 발굴 등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가 수소충전소 등 개별 인프라 설치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제성 미확보, 주민 호응 저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2019년 9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통해 수소융합 테마도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별 대규모 수소 연계 특화산업(도시·교통 등)을 발굴해 국비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수소융합 테마도시 관련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추진된 수소시범도시(국토교통부 공모사업)를 안산시에 유치, 지난해부터 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조성 중이다. 안산도시개발㈜ 부지 내 LNG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을 설치, 도시의 교통(수소버스·충전소), 주거(수소연료전지발전을 통한 열·전기 공급), 산단(연료전지·수소지게차, 시화호 조력발전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다. 2022년 완공 예정이다.

평택시에서는 수소교통복합기지와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물류·교통 중심지인 평택항에 수소생산시설(210억원 규모)을 올 하반기 조성하는 가운데 수소차량정비 등 부대시설을 집적화하면서 수소 교통 효과성을 검증하는 복합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토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160억원 규모)에 선정, 2023년 사업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수소 산업 전반을 개발·실증·활용할 특화 산업단지 개념인 '경기도형 수소융합 클러스터 발굴·육성'도 추진 중이다.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올 6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 현실화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는 기존 4개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 국토부의 수소도시 추가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물류·항만 대표 지역에 경기도형 친환경 수소교통모델을 발굴하는 등 후속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국내 수소 산업의 경제 효과는 연간 7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경기도는 인구(25%), 제조업체(35%), 자동차(24%) 등 전국에서 수소 수요가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면서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성해 경기도가 국내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부산명품 명란젓, 우체국 쇼핑몰 통해 판로 개척 나선다!

쿠폰 할인·타임 딜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판로 지원 통한 수산업계 매출 증대 도모

부산시와 (사)부산명품수산물협회는 부산의 대표상품인 명란젓의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명품 명란젓의 우수함과 차별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수산식품 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와 부산지방우정청은 5월 4일부터 우체국 쇼핑몰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해 명란젓 상품을 노출하고, 특가 이벤트 등을 진행해 부산명품 명란젓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명란젓은 부산시에서 부산명품수산물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4개 업체(덕화푸드, 대경FNB, 희창물산, 삼양씨푸드)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낮은 염도의 고급·웰빙 식품이다.

특히 시는 지역특산물 쿠폰 할인과 타임 딜, 쇼핑 25시 등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명란젓을 제공하고, 메일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체국 쇼핑몰은 전국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대표 공공 온라인쇼핑몰로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상품들이 입점해있으며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번 부산명품 명란젓 제품 입점을 시작으로 홍보 효과와 사업성이 입증되면 다른 부산명품수산물 상품으로 확대해 부산의 우수한 수산식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류석/대기자

‘라디오스타’ 이홍기, ‘전역돌’로 웰컴백! 돌직구X차진 입담으로 전역 후 첫 예능 신고식 대성공!

FT아일랜드 이홍기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군백기(군대+공백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차진 입담으로 전역 후 첫 예능 신고식을 대성공으로 완료했다.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했던 아역 스타 출신 이홍기, 함은정, 왕석현, 이유진, 전성초가 한 자리에 모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어린이’ 특집은 안방을 꿀잼과 추억 속에 빠져들게 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 연출 강성아)는 이홍기, 함은정, 왕석현, 이유진, 전성초와 함께하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어린이’ 특집으로 꾸며졌다.

6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또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선보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어린이’ 특집은 훈훈하게 잘 커 준 아역 스타 5인의 입담과 매력으로 꽉 채워진 시간으로 꾸며졌다. 귀염뽀짝 아역스타들의 폭풍 성장한 근황, 떡잎부터 남달랐던 아역 시절 비화까지 다재다능함으로 똘똘 뭉친 5인의 특급 매력이 유쾌한 웃음 속 시간 순삭을 부르며 안방 팬들을 취향 저격했다.

지난달 제대한 이홍기는 전역 후 첫 예능 프로그램으로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군백기(군대+공백기)’를 무색하게 하는 입담을 펼쳤다. 2002년 드라마 ‘매직키드 마수리’ 출연 비화부터 현 소속사인 FNC 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 당시 스토리, 도경수, 임재범, 박효신 등 황금 인맥 비화를 방출하며 입담을 봉인 해제했다.

과거 ‘라스’에 출연해 ‘소속사 저격수’에 등극했던 이홍기는 군 입대 전 재계약 시즌이었다며 “‘라스’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조항의 글씨가 커졌더라”라고 고백해 폭소를 자아냈다. 또 이홍기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다”며 전역기념 자축 무대로 데뷔곡 ‘사랑앓이’를 열창, 명불허전 가창력을 뽐냈다.

대하드라마 ‘토지’에 출연한 연기돌 함은정은 당찬 입담꾼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몸종 봉순 역을 맡아 역할을 위해 예쁨을 포기하고 얼굴을 검게 분장하고 표정도 상황에 맞게 몰입한 장면이 ‘함딩요’라는 ‘굴욕짤’로 돌아 억울했다며 연기 열정이 낳은 후폭풍을 언급했다.

또 이홍기와 나 홀로 반나절 베프가 됐던 오싹 비화 역시 전했다. 과거 친분이 없던 이홍기에게 연락이와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상대가 이홍기의 사칭이었다는 것. 이홍기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깜짝 놀란 리액션을 펼쳤다.

영화 ‘과속스캔들’의 썩소 꼬마 왕석현은 19살의 훈남 비주얼로 등장해 2021년 버전 썩소를 공개했다. 5살 때 누나가 영화 오디션을 보는 현장을 따라갔다가 캐스팅된 비화를 소개하며 ‘왕석현 설화’ 토크로 웃음을 안겼다.

또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박보영을 두고 “진짜 엄마로 생각할 정도로 좋아했다. 한번은 울고 있었는데 박보영 엄마가 달래 줬다. 그때 ‘울음 그치면 나랑 결혼해 줄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5살 시절 최준을 능가하는 버터 매력을 뽐냈던 비화를 소환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내가 과속을..?!”이라며 ‘과속스캔들2’를 찍고 싶다고 밝혔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배우 오나라의 아들이자, 수한이로 사랑받은 이유진은 2년 만에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해 훤칠한 비주얼을 뽐냈다. 이유진은 ‘스카이캐슬’을 찍을 때 ‘혜나는 누가 죽였나’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비화를 소환했다. 또 오나라의 깜짝 영상 편지에 수줍게 사랑한다고 화답, 달달한 아들美를 드러냈다.

엑소 도경수에게 자극받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다는 이유진은 엑소의 ‘러브샷’ 댄스에 도전, 도경수 바라기의 파워풀한 헌정 댄스 무대로 넘치는 끼를 발산했다.

2000년대 최고의 어린이 드라마 ‘요정 컴미’로 사랑받았던 전성초는 배우가 아닌 영어 방송인 겸 통번역가로 왕성한 활동 중인 근황을 공개했다. 전성초는 “50부작이 476부작이 됐다”고 당시 어린이들의 ‘귀가 시계’였던 ‘요정 컴미’의 인기를 언급했다.

‘요정 컴미’ 종영 후 스타 아역배우의 자리를 버리고 유학길에 올랐다는 전성초는 현재 영어 방송인 및 통역가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또 ‘태양의 후예’, ‘푸른 바다의 전설’ 영화 ‘싱글라이더’에 영어 번역가로 참가하고 한효주, 추자현, 아이유의 영어 선생님이라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다음 주에는 정준하, 김종민, KCM, 나인우가 출연하는 '순수의 시대' 특집이 예고됐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멸망을 위해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와 100일 시한부 인간의 특별한 로맨스가 온다! 新 판타지 로맨스 ‘멸망’이 기대되는 이유! ‘멸망’, ‘치명 설렘’부터 ‘서늘 긴장’까지! 올봄 시청자 사로잡을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멸망을 위해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와 죽음을 100일 앞둔 인간의 사랑이라는 참신한 설정으로 올봄 시청자를 찾아온다.

오는 10일(월) 밤 9시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이하 ‘멸망’)(연출 권영일/극본 임메아리/기획&제작 스튜디오앤뉴, 스튜디오드래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서인국 분)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박보영 분)의 아슬아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로 섬세한 필력을 인정받은 임메아리 작가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로 따스한 웃음을 선사한 권영일 감독의 의기투합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멸망’은 신선한 설정으로 관심을 모은다. ‘멸망’은 원대한 목표 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100일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자 동경이 세상의 멸망을 부르짖자,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인 멸망이 찾아온다는 독특한 설정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목숨을 건 계약으로 얽힌 동경과 멸망이 서로의 생에 침투하며 변화해가는 과정과, 그 속에 싹트는 존재를 넘어선 로맨스가 치명적인 설렘을 예고한다.

더욱이 동경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당찬 성격의 소유자. 이에 죽음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미소 지어 보이는 동경과 죽음을 관장하는 존재 멸망의 케미스트리가 보는 이들을 빠져들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푸르른 생기를 품은 동경과 다크한 소멸의 기운을 뿜어내는 멸망의 대비가 이목을 끌 예정. 뿐만 아니라 동경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멸망의 초월적인 활약이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

이처럼 ‘멸망’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존재와 설정을 통해 강렬한 설렘과 신선한 재미를 기대케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tvN은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을 시작으로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구미호뎐’ 등 판타지를 가미한 로맨스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바. 이에 올봄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tvN의 판타지 로맨스 흥행 계보를 이어갈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멸망’에 기대감이 치솟는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오는 10일(월) 밤 9시 첫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빈센조’ 김영웅, “인기 살감? 동네 주민들 송중기 얘기만 물어봐”

‘금가동 뉴트리아’ 김영웅, “‘석며들다’란 말에 감동받아”

tvN 드라마 ‘빈센조’의 신스틸러 김영웅이 드라마 비하인드와 연기 인생 풀스토리를 공개해 화제다.

최근 15%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화려하게 종영한 ‘빈센조’에서 ‘금가동 뉴트리아’란 애칭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김영웅은 디지털매거진 무비위크(movieweek)와의 인터뷰에서 뜻 깊은 드라마 출연 소회를 밝혔다.

극중 그는 바벨 그룹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 두목에서,빈센조(송중기) 패밀리의 금가프라자에 입주한 바이바이벌룬 박석도 사장으로 변신해 선과 악을 오가는 연기는 물론, 코믹과 액션 연기까지 입체적으로 소화해 시청자들을 열광케 했다.

특히 빈센조와 박석도의 반전 케미 때문에 ‘센도 커플’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이에 대해 김영웅은 “빈센조가 바이바이벌룬 사무실에 들러 지구본을 들고 박석도 앞에서 포즈를 취해준 장면들은 100% 애드리브였다. 송중기의 유연한 연기에 힘입어 애드리브를 쳤는데 잘 받아주어서 신이 재밌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14세 어린 송중기에게 반말을 듣고 굴욕을 당하는 박석도 역할에 대해 그는 “금가패밀리 중 빈센조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은 박석도밖에 없을 것”이라며 “같이 반말을 쓰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다. 금가패밀리 2인자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요즘 인기를 실감하냐?”는 질문에도 솔직 유쾌한 대답을 들려줬다. 김영웅은 “아파트 주민 분들이 분리수거장에서 ‘드라마 잘 보고 있다’면서 ‘근데 송중기는 진짜 잘 생겼냐? 피부가 좋냐?’라며 송중기 질문만 하신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승-전-송중기지만 최근 한 식당에서 사장님의 서비스도 받아봤다. 알아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살면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부산에서 연기력으로 소문난 ‘연극판 아이돌’이었지만, 연기 인생 30여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난 2년여간은 슬럼프에 잠겨 있기도 했다고. 그럴 때 만난 인생작이 ‘빈센조’여서 이번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터.

김영웅은 “첫 방송 전에 200여명의 스태프가 ‘시청률 맞히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 7.5%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시청률이 7.65%였다. 박재범 작가님의 팬이기도 하고 김희원 감독님이 현장을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무조건 대박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나름 현실적인 수치를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영웅은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 대학로 연극판 시절의 에피소드, 배우로서의 가치관과 인생관 등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김영웅 배우의 인터뷰 풀버전은 유튜브 채널 ‘무비위크’에서 만날 수 있다.

현유주/기자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변우석-강미나,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합류

유승호, 이혜리의 캐스팅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변우석, 강미나가 합류하면서 기대감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이로서 청춘 4인방의 캐스팅을 마친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명실상부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연출 황인혁 / 극본 김주희 / 제작 (유)꽃피면달생각하고문화산업전문회사 (주)몬스터유니온 (주)피플스토리컴퍼니) 측은 5일 “변우석, 강미나가 드라마에 합류하게 되어 청춘 4인방의 캐스팅을 완성했다”라고 전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연출을 맡은 황인혁 PD는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아 이번 작품에서 그가 보여줄 참신한 연출에 기대감을 모은다.

변우석은 금주령의 시대, 반항미를 장착한 왕세자 ‘이표’를 연기한다. 이표는 “어딜 가든 세상을 밝히는 얼굴”의 소유자로, 처음부터 세자가 될 운명은 아니었으나, 현재로선 유일한 왕자로서 왕위 계승 1순위이다.

다 가진 세자 이표의 유일한 벗은 다름 아닌 술. 금주령이 내려진 시대, 몰래 궐을 빠져나가 밀주방을 드나드는 탓에 나라의 골칫덩이로 꼽힌다.

변우석은 전작 ‘청춘기록’에서 풋풋한 청춘 그대로의 모습을 연기하고 훈훈한 피지컬로 여심을 저격했다. 특히 이번이 첫 KBS 드라마 출연으로 앞으로 활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강미나는 명문가의 무남독녀이자, ' 조선판 직진녀' ‘한애진’으로 변신한다. 어화둥둥 귀하게 자란 애진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을 가졌다.

혼기 꽉 찬 나이, 평생 보고 살 낭군님 얼굴이 이왕이면 잘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들어온 사람에게 직진하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다.

연기자로서 완벽하게 변신을 한 강미나는 드라마 스테이지 ‘직립 보행의 역사’를 통해 변우석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이번 드라마에서 이 둘의 케미를 기대하게 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변우석과 강미나의 합류로 유승호, 이혜리와 함께 청춘 4인방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캐스팅이 완성됐다”며 “신선한 소재를 사용해 지금까지의 퓨전 사극과 다른 새로운 설렘, 재미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든 스텝들이 부단히 노력 중이니 ‘꽃 피면 달 생각하고’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5월 중 첫 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